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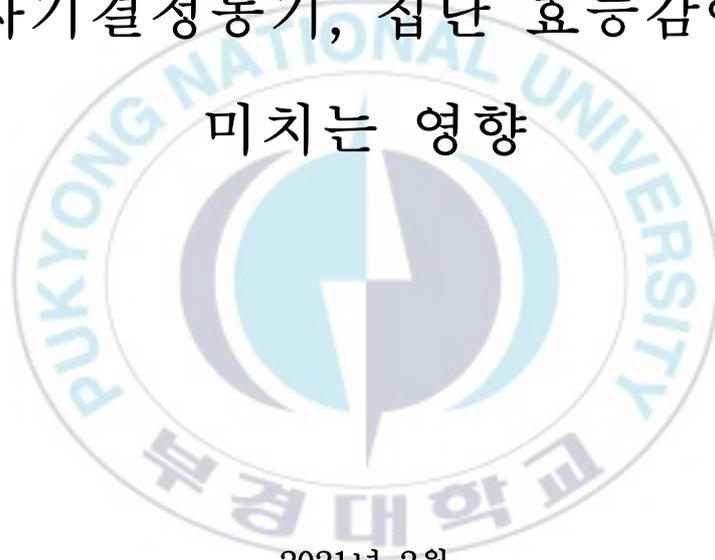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고교 야구선수의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욕구,  
자기결정동기, 집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2021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배성철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고교 야구선수의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욕구,  
자기결정동기, 집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송 용 관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배성철

배성철의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2월 19일



주 심 체육학박사 박 중 철 

위 원 체육학박사 송 용 관 

위 원 체육학박사 김 대 환 

# 목 차

<b>I. 서론</b> .....	<b>1</b>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4
3. 연구가설 .....	5
4. 연구모형 .....	6
5. 연구의 제한점 .....	7
<b>II. 이론적 배경</b> .....	<b>8</b>
1. 삼분법적 자기효능감 .....	8
2. 자기결정이론 .....	13
3. 심리적 욕구이론 .....	16
4. 집단 효능감 .....	20
<b>III. 연구방법</b> .....	<b>23</b>
1. 연구대상 .....	23
2. 측정 도구 .....	24
3. 자료처리 .....	38
<b>IV. 연구결과</b> .....	<b>39</b>
1. 기술통계 .....	39
2. 상관관계 분석 .....	44
3.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욕구에 미치는 영향 .....	48

4.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이 자기결정동기에 미치는 영향 .....	51
5.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이 집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54
6. 심리적 욕구가 자기결정동기에 미치는 영향 .....	57
7. 심리적 욕구가 집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60
8. 자기결정동기가 집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63
<b>V. 논의 .....</b>	<b>66</b>
1.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욕구에 미치는 영향 .....	66
2. 심리적 욕구가 자기결정동기에 미치는 영향 .....	68
3. 자기결정동기가 집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70
<b>VI. 결론 및 제언 .....</b>	<b>72</b>
1. 결론 .....	72
2. 제언 .....	73
<b>참고문헌 .....</b>	<b>74</b>
<b>Abstract .....</b>	<b>83</b>
<b>부록 .....</b>	<b>85</b>

## 표 목차

표 1.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	24
표 2. 측정도구의 구성 .....	25
표 3.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설문 문항 .....	26
표 4. 심리적 욕구 만족에 대한 설문 문항 .....	28
표 5. 자기결정동기에 대한 설문 문항 .....	29
표 6. 집단 효능감에 대한 설문 문항 .....	30
표 7.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	32
표 8. 삼분법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접합도 지수 .....	34
표 9.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접합도 지수 .....	35
표 10. 자기결정동기 척도의 접합도 지수 .....	36
표 11. 집단 효능감 척도의 접합도 지수 .....	37
표 12. 삼분법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기술통계량 .....	39
표 13.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기술통계량 .....	41
표 14. 자기결정동기 척도의 기술통계량 .....	42
표 15. 집단 효능감 척도의 기술통계량 .....	43
표 16. 연구 변인 간 상관관계 .....	47
표 17.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욕구에 미치는 영향 .....	48
표 18.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이 자기결정동기에 미치는 영향 .....	51
표 19.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이 집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54
표 20. 심리적 욕구가 자기결정동기에 미치는 영향 .....	57
표 21. 심리적 욕구가 집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60
표 22. 자기결정동기가 집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63

##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모형 .....	6
그림 2. 집단 효능감 선행변인 .....	20
그림 3. 집단 효능감의 형성과정 .....	21
그림 4. 삼분법적 자기효능감 측정모형 .....	33
그림 5.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측정모형 .....	34
그림 6. 자기결정동기 척도의 측정모형 .....	36
그림 7. 집단 효능감 척도의 측정모형 .....	37



고교 야구선수의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욕구, 자기결정동기, 집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배 성 철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고교 야구선수가 인식하고 있는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욕구, 자기결정동기와 집단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 경남, 경북에 있는 9개 학교 고교 야구선수 4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AMOS와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삼분법적 자기효능감 내 자기효능감은 자율성, 유능성과 관계성 욕구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관계 추론 효능감은 자율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지만, 유능성과 관계성에는 정적 영향을 미쳤다. 타인에 의한 자기효능감은 자율성과 관계성에 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유능성에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삼분법적 자기효능감 내 자기효능감은 자율성 동기에 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통제 동기에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관계 추론 효능감은 자율성 동기와 통제 동기에 부적 영향을 미쳤지만, 무동기에는 정적 영향을 미쳤다. 타인에 의한 효능감은 자율성 동기에는 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통제 동기와 무동기에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삼분법적 자기효능감 내 자기효능감은 팀 전략, 지도자 신뢰, 의사소통과 훈련 등 집단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관계 추론 효능감은 팀 전략에만 정적 영향을 미쳤고, 지도자 신뢰, 의사소통과 훈련에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타인에 의한 효능감은 팀 전략, 지도자 신뢰, 의사소통과 훈련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 유형에 따라서 심리적 욕구, 자기결정동기와 집단효능감에 다르게 영향

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 삼분법적 효능감 유형은 야구선수의 욕구, 동기와 집단효능감에 행사하는 영향력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현장의 지도자는 선수의 자기효능감을 증진하기 위해서 선수의 능력을 믿고, 어려운 과제를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실패하더라도 계속 응원해줘야 한다. 이러한 요소가 선수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욕구, 동기와 정서와 같은 다양한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변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주제어: 삼분법적 자기효능감,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 타인에 의한 자기효능감, 심리적 욕구, 자기결정동기, 집단 효능감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고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불안보다는 자신감이 높으므로 최적의 경기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낮은 선수는 자신감보다는 불안감이 높아 저조한 경기력을 보일 것이다. 경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기대와 신념은 최적의 운동수행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주요 심리적 특성이며, 심리적 불안감과 압박감을 극복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환경적 요인으로는 주요타자의 영향력을 들 수 있다.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기대와 신념을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이다(Bandura, 1986). 자기효능감이 높은 선수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였을 때 현재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상황인식을 토대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도덕적인 상황이나 어려운 의사결정 과정에서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천승현, 송용관, 2017).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은 형성하는 주요 요인은 개인적 특성에 의해서 그 수준이 결정되지만, 최근에는 주요타자의 영향력에 의해서도 효능감 수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천승현, 송용관, 2017). 즉,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개인이 지닌 능력에 관한 믿음과 신념을 중심으로

판단되지만, 개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감독과 코치, 동료선수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형성 및 결정된다.

자기효능감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자기효능감 형성은 과거 수행, 간접 경험, 언어적 설득과 신체 및 정서적 상태에 의해서도 결정되지만, 지도자가 선수의 능력을 얼마나 믿는지, 선수가 지도자의 능력을 신뢰하는지 그리고 동료가 자신의 능력을 믿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자아효능감이 지도자와 동료와 같은 주요타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최근에 삼분법적 효능감(tripartite efficacy) 모델을 통해서 제안되었다(Jackson, Whipp, Chua, Pengelley, & Beauchamp, 2012). 즉,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믿음과 신념과 더불어 주요타자에 대한 자신의 믿음, 나에 대한 중요한 타인의 믿음과 신념 등 삼분법적인 네트워크(tripartite network of efficacy)를 통해 상호보완적으로 형성되고 발달한다(Lent & Lopez, 2002). 삼분법적 효능감에서는 자기효능감 형성 및 발달에 주요타자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주요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효능감 형성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삼분법적 효능감에서는 개인의 자기효능감 형성과 발달을 지도자가 자신의 능력을 얼마나 믿어주는지, 그리고 지도자가 지닌 능력에 대한 믿음이 어떤지를 타인 효능감(other efficacy)과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relation-inferred self-efficacy)으로 개념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결국, 개인의 능력에 관한 신념과 믿음은 개인적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주요타자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삼분법적 효능감에서 제시 및 강조하고 있다.

팀 스포츠는 선수, 코치, 동료 등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의도된 가치를 추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코치와 선수 간의 바람직한 관계는 훈련 동기를 높여서 경기력을 향상하며, 선수로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한다(김혜정, 한송이, 2010). 결국, 코치가 선수에게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과 능력에 대한 칭찬을 통해 선수가 노력을 많이 하고 경기를 즐기게 된다(김인수, 2014). 하지만 코치가 선수에 대한 신뢰가 미비하거나, 선수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낮게 인지하면 선수의 수행 능력은 저하될 수 있다(천승현, 송용관, 2017). 따라서 선수의 자기효능감은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도자와의 긍정적인 관계와 믿음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삼분법적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삼분법적 효능감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간헐적으로만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노력, 즐거움, 유능성 내적 동기와 무동기와 삼분법적 자기효능감 내적 상관을 추론하고 있는 수준이다(천승현, 송용관, 2017; Boiché et al., 2008; Hagger, Chatzisarantis, Barkouskis, Wang, & Baranowski, 2005; Jackson et al. 2012). 선수의 자기효능감은 코치의 지도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삼분법적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변인과의 관계를 지속해서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선행 연구의 경우, 삼분법적 자기효능감 요인을 파악하고 척도 검증 연구(김인수, 2014; 천승현, 송용관, 2017)와 대학 무용수들의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의 특성을 파악한 연구(정미진, 2018)만이 보고되고 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삼분법적 자기효능감과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선행적으로 삼분법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요인이 국내 체육수업과 스포츠 상황을 비롯하여 다양한 운동 종목에서 척도의 보편성이 검증되어야 관련 연구가 지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삼분법적 자기효능감 보편성을 확장하는 측면에서 수행되었다.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은 동기 변인과 관련되어 있기에 개인의 심리적 욕구, 자기결정동기와 집단 효능감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적 특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삼분법적 자기

효능감은 개인적 특성과 함께 주요타자의 환경적 특성에 영향력을 강조하기에 개인과 팀 특성을 모두 갖춘 야구선수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야구는 선수 개개인이 독립적인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팀 수행력을 지속해서 향상하기 위해서 상호의존적으로 협력적 관계가 필요하며, 이러한 특성의 집단의 힘으로 나타날 수 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야구선수의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욕구, 자기결정동기, 그리고 집단 효능감과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야구선수를 대상으로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자기효능감,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 타인 효능감)이 심리적 욕구(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와 자기결정동기(내적 동기, 확인 규제, 의무감 규제, 외적규제, 무동기)와 집단 효능감(팀 전력, 지도자 신뢰, 의사소통, 훈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야구선수들의 안정적인 경기력 발휘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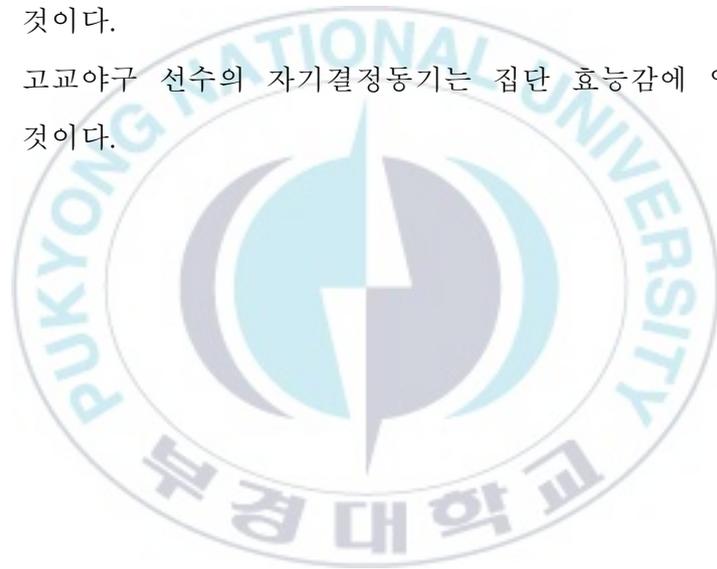
### 3.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 I. 고교야구 선수의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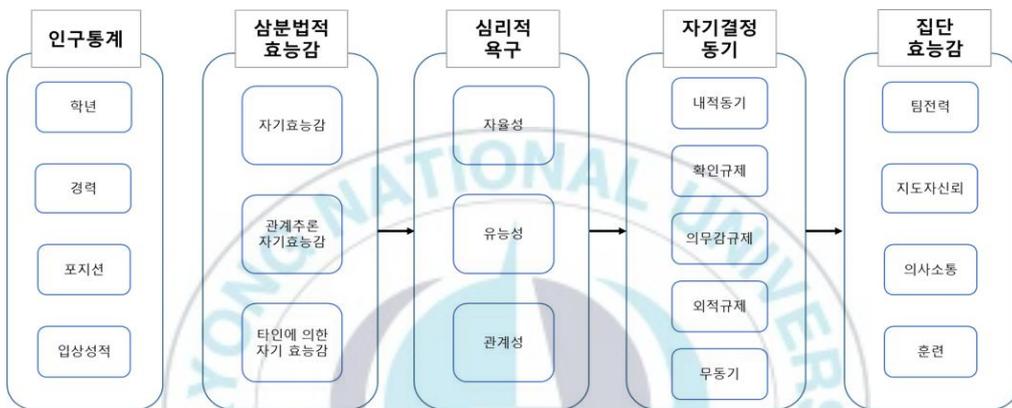
가설 II. 고교야구 선수의 심리적 욕구는 자기결정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III. 고교야구 선수의 자기결정동기는 집단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 연구모형

<그림 1>은 삼분법적 자기효능감, 심리적 욕구, 자기결정동기와 집단 효능감과의 관계를 제시한 연구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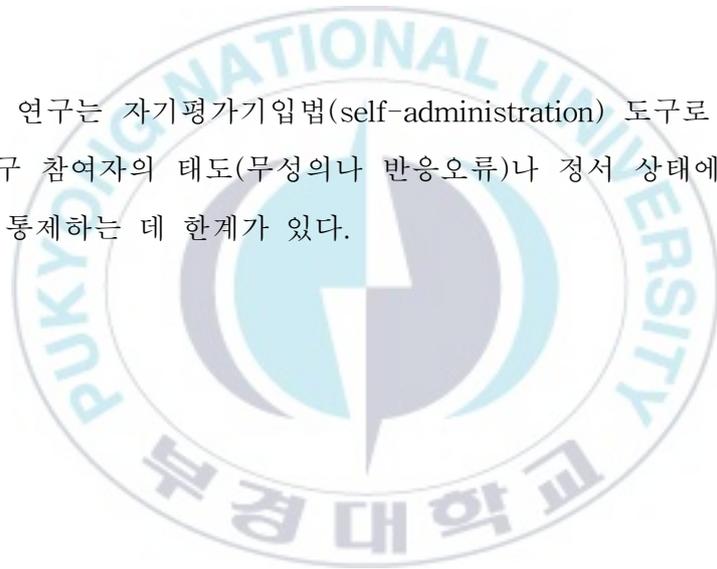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 경남, 경북지역의 고교야구 선수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제한된 연구대상의 지역적 특성, 환경 등 외부 요인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도구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의 태도(무성의나 반응오류)나 정서 상태에 따른 영향을 완벽히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 Ⅱ. 이론적 배경

### 1. 삼분법적 자기효능감

#### 가.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의 개념적 정의

삼분법적 효능감 모형(tripartite efficacy model)은 Lent와 Lopez(2002)에 의해 제시되었다. 삼분법적 자기효능감 모형이란 세 가지 유형의 효능감이 연결되어 상호 간 영향을 주고받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의 구성은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 관계 추론 효능감(RISE), 그리고 타인 효능감(other-efficacy)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타인에 의한 효능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예를 들면 ‘나는 경기에서 매번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와 유사한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은 다른 사람이 나의 능력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을 뜻한다. 예를 들면 ‘지도자는 내가 경기에서 제시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타인 효능감은 타인의 능력에 대한 나의 믿음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도자는 내가 성공적으로 운동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와 같은 것이다(천승현, 송용관 2017).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을 사회 인지학습이론의 핵심적 개념으로 간주하였다. 즉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과제에 대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 사회 인지학습이론은 새로운 행동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여 습득된다고 말한다

(Bandura, 1986). 학습이란 관찰학습과 모델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관찰학습은 다른 사람과 그 주위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주의를 집중시켜 정보와 기술을 얻는 것을 말한다. 또한, 모델링이란 특정 행동을 관찰한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과 인지, 그리고 정서 변화를 말한다(Bandura, 1977).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교사, 동료 등 주변인을 모델로 삼고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다(Bandura, 1986). 자기효능감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개인의 성공 경험, 대리경험, 언어 설득, 신체 및 정서 상태가 있다. 자기효능감은 학습에 영향력을 미친다. 학습자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다면 학습자는 학습활동에 더욱 집중하며 어려운 과제도 지속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학습자의 자기효능감 수준이 낮다면 학습자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을 때 쉽게 포기 또는 과제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학습자의 노력, 목표성취, 지속성, 수행력 등 행동 선행변인으로 작용한다(천승현, 송용관, 2017). 이는 홍현경(2012)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습자의 높은 자기효능감은 도전적 과제 선정, 적극적 태도로 과제 참여, 구체적 목표의 선택, 지속적 노력과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결과적으로 자기효능감은 개인 성취감, 운동참여 및 운동 수행 지속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천승현, 송용관, 2017).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relation-inferred self-efficacy, RISE)이란 타인이 자기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Lent & Lopez, 2002). 다시 말해 개인에 대해 3자의 평가를 인지하는 형태이며 이는 상위인지(Meta-cognition)에 해당하는 개념이다(Kenny & Acitelli, 2001).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의 선행변인이며 인지적 행동 예측 요인이다. 또한, 수행과 노력, 즐거움 등 다양한 부가적 결과를 예측한다(Lent & Lopez, 2002). 학교체육 상황에서는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은 수업상황 속에서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학습자의 행동을 강화한다(김인수, 2014). 다시 말해 교사가 학습자 능력을 고 평가하고 있다고 믿는 것은 학습자가 긍정적 행동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습자는 더욱 노력하고 태도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김인수, 2014).

타인 효능감(other-efficacy)은 타인의 전문성 또는 보유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Lent & Lopez, 2002).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타인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일정 부분 영향력이 있으며 자기 능력을 향상해 줄 것이라 믿는 것이다. 타인 효능감은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과 마찬가지로 자기효능감의 선행 요소로 밝혀졌다. 또한, 이는 인지적 행동의 예측 인자로 작용하며, 수행, 노력, 즐거움과 같은 다양한 부가적 결과를 직접 예측할 수 있다(Lent & Lopez, 2002).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신념이나 믿음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Lent와 Lopez(2002)의 삼분법적 자기효능감 모형(tripartite efficacy model)에 따르면 자기효능감 형성은 과거의 수행과 간접 경험, 신체 및 정서적 상태, 언어적 설득 때문에 결정되기도 하나 주요한 타자인 동료와 교사 등의 영향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며,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과 타인 효능감이 함께 반영될 경우 자기효능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은 개인 신념과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과 타인 효능감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삼분법적 자기효능감 모형은 환경적인 요소들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된 학습환경에서 효능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나. 삼분법적 자기효능감 선행연구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과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 그리고 타인 효능감이 상호 간 보완성이 적용된 개념이다(Lent & Lopez, 2002). 개인 역량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교류와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성공적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Jackson 등(2012)이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이 척도가 타당성이 확보되었다(천승현, 송용관, 2017). 이후 체육 영역에서 개인 효능감과 함께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 타인 효능감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했던 노력이 있었으나 현재 이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국내 체육수업과 관련 있는 삼분법적 자기효능감 관련 연구들(김인수, 2014; 천승현, 송용관, 2017)은 소수 존재하고 있지만, 엘리트 학생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Lent와 Lopez(2002)는 타인 효능감과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은 정서와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로 학습자에 의해 지도자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될수록, 또한 학습자를 직접 가르치고 있는 지도자가 학습자의 능력을 높게 평가할수록 학습자의 노력과 즐거움은 배가됨을 주장하였다. 덧붙여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과 타인 효능감 요소는 선행 요소가 되어 자기효능감을 증진하며 수업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시했다(Lent & Lopez, 2002). 이러한 결과들은 Dunlop, Beauty와 Beauchamp(2011)의 연구와 김인수(2014)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우선, 김인수(2014)의 연구에서는 체육수업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의 선행변인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기효능감은 수행결과와 노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후 천승현, 송용관(2017)은

Jackson 등(2012)이 제시 및 개발한 삼분법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국내 체육 현장에 접목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번안된 삼분법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타당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자기결정이론

인간의 행동 방향과 강도를 제시하는 심리 요인은 동기(motivation)이다. 동기는 인간 행동을 시작하게 하고 그 방향을 결정하며 행동을 유지하는 심리적 요소로 정의된다(Ryan & Deci, 2000). Alderman(1974)은 동기에 대한 정의를 모든 행동 실행에 있어 그 행동을 결정하는 버튼의 기능을 한다고 정의하였다. 동기는 여러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며 그 중 동기유발 기전을 내적 관점, 외적 관점으로 구분한다. 결과적으로 동기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구분된다. Carroll(1963)은 내적 동기를 외적 보상 없이 오로지 자기 사전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다시 말해 학습자가 자신을 위해 자신만의 방법을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의지에서 나오는 동기를 의미한다(박영민, 2010). 반면에 외적 동기는 학습자 자신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오는 특정 보상을 바라며 활동하는 욕구를 가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Carroll, 1963).

1970년대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관계성을 다룬 연구결과를 보면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는 서로 양립 불가능한 관계로 보는 결과들이 많았다(Lepper, Green & Nisbett, 1973). 특히 내적 동기는 외적 동기가 증대될 수 있는 영역을 감소시킨다(Lepper & Greene, 1975). 또한, 내적 동기에 의해 발현되는 행동들은 외적 동기가 없을 때 발현되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Deci, 1971).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내적과 외적 동기 사이 관련성을 다룬 새로운 연구들이 시도되었으며, Deci와 Ryan(1985)은 자기결정성 이론 제시를 통해 자기결정성 요인을 개인의 내적 동기 결정 변인이라고 강조하였다.

Deci와 Ryan과 같은 내적 동기 이론가들은 동기에 대한 정의를 자기 결정성에 대한 주관적 지각이라는 관점에서 정의 내린다(최병연, 2002). Deci

와 Ryan(1985)은 동기를 자기 결정성 정도의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개념으로 제안했고, 상대적 자기 결정성 정도에 따라 무동기로부터 가장 자율적인 내적조절에 의한 동기까지에 이르는 동기유형을 제시하였다. 동기유형은 행동조절 원인이 포함된 자율성 정도에 따라 무동기, 내적 동기, 외적 동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외적 동기는 외적 조절, 확인된 조절, 의무감 조절, 통합된 조절로 구분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교 엘리트 야구선수의 행동규제를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내적규제, 외적규제, 확인 규제, 의무감 규제, 무동기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내적규제란 자아의 완전 자유의지와 자기 결정성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이며 자기 결정성에 의해 나타나는 가장 자율적인 동기유형이다. 내적규제는 개인이 보상 또는 제약, 압력 없이 자신의 내적 즐거움, 만족, 호기심, 흥미 때문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동기로 수행을 통해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낀다(김아영, 오순애, 2001; 유지원, 2011; Deci & Ryan, 2000). 따라서 내재적 성취를 획득하거나 호기심과 도전 정신을 유발하는 과제를 선호하게 된다. 또한, 본인의 내적인 기분에 따라 과제 수행결과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Deci & Ryan, 2000), 내적규제는 최선의 자기 결정성을 갖는 동기유형으로 자기 결정적이고 자율적 행동 원형이라 할 수 있다(Deci & Ryan, 2002).

둘째, 외적규제는 자기 결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타율적 행동이며 외적 보상, 합력, 제약에 순응하기 위한 행동이다(하정완, 2016). 다시 말해 외적 동기유형 중에서도 자기 결정성이 가장 낮은 유형이며 자기 자신의 의사는 반영됨이 없이 외부 압력 또는 보상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다. 외적규제는 동기유형 중 조작적 이론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외적규제 때문에 발생하는 행동은 보상이 철회될 때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외적규제는 통제적이라 할 수 있고 낮은 수행 수준을 보이게 된다(천경민, 2009).

셋째, 확인 규제는 개인이 행동 목표를 자신의 것으로 완전 내재화를 시키지 않더라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상태를 말한다. 확인 규제는 외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이나 특정 목표에 의한 행동으로 내적 동기와의 관련성이 높다. 다시 말해 확인 규제는 과제 자체에 대한 만족 또는 기쁨을 느끼는 내적규제와는 달리 어떠한 목적 달성을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외적 규제라 할 수 있다(Deci & Ryan, 2002).

넷째, 의무감 규제는 자신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는 인정을 추구하며 동시에 불안과 죄책감, 타인으로부터 얻는 비난 등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이다(최병연, 2002). 다시 말해 의무감 규제 행동은 수치심, 죄의식 등을 피하고, 자기 자신을 강화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행동이며 자신 또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비난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다(Deci & Ryan, 2002). 이와 같은 의무감 규제를 토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대상에 대한 내적 동기를 상실하는 경향이 있다고 선행연구는 밝히고 있다(Ryan, Fredrick, Lipes, Rudio & Sheldon, 1997).

다섯째, 무동기는 자기 결정성 연속선상에서 자기 결정성이 전혀 없는 안쪽 극단에 있는 동기유형으로써 학습동기가 전혀 내면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 무동기는 외적 보상이나 처벌이 주어지더라도 학습 욕구가 생기지 않으며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과 유사점이 있다(Ryan, 1995). 무동기 상태에서의 학습자는 자신 행동에 대해 가치를 전혀 부여하지 않고 자신 행동과 그 행동에 따른 결과 간 연관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다. 주로 원하는 결과에 대한 통제감이나 효능감이 모자란 상태이며 행동조절이 불가할 때 발생한다(김아영, 오순애, 2001; Ryan & Deci, 2000).

### 3. 심리적 욕구이론

#### 가. 심리적 욕구의 개념적 정의

기본 심리적 욕구이론은 자기결정 이론의 하위이론에 포함되는 이론 중 하나이다. 이러한 기본 심리적 욕구이론은 심리적 욕구 만족과 심리적 욕구 좌절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자기결정 이론이 보여주는 심리적 욕구는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 지어볼 수 있다. 인간이 어떠한 활동을 할 때 심리적 욕구가 충족된다면 인간은 그 활동에 흥미와 재미, 기쁨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심리적 욕구는 인간이 개인 자아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욕구라 할 수 있다(송용관, 김승재, 천승현, 2017; Bartholomew et al., 2011).

심리적 욕구 구성요소 중 유능성이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심리적 욕구이다. 또한, 이러한 심리적 욕구는 개인의 역량 개발 및 기술을 능숙하게 하며 이 과정을 거침에 있어 가장 나은 도전을 추구하고 숙달하려고 하는 바람을 말한다(Deci & Ryan, 1985). 예를 들어 보통 체육수업에서나 특정 운동 상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수행해보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터득하길 원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 스스로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과정이 유능성이라 할 수 있다. 자율성이란 자기 행동의 시작과 조절과정 중 스스로에 대한 지시 및 개인 승인을 경험하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라 할 수 있다(Deci & Ryan, 1985). 즉, 스포츠나 체육활동, 또는 학습활동 중에 개인이 자율성을 부여받고 인정받을 때 개인은 그 활동에 재미를 느끼며 활동 상황 또는 과정에서 자기 행동의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한다. 관계성이란 타인과 친밀한 정서 결속 및 애착을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관계성은 보통 따뜻한 관계를

의미하며 정서적으로 연결 혹은 상호 간에 관여되는 욕구를 말한다(Ryan 1995). 인간은 기본적으로 특정 집단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집단 속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 간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려 한다. 따라서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의 욕구 충족은 인간의 심리 변인과 행동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심리적 욕구 좌절은 기본 심리 욕구가 사회 맥락 혹은 교사, 동료와 같은 주요한 타자에 의해 좌절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Vansteenkiste & Ryan, 2013).

유능성 좌절은 주요한 타자로부터 실패감을 느껴 자신 능력에 대해 의심하는 것을 말하며 자율성 좌절은 개인이 외적인 강요로부터 오는 압박으로 인해 통제됨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관계성 좌절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배제되거나 이로 인한 외로움의 경험을 의미한다(Chen et al., 2015). 최근 시도된 심리적 기본 욕구 이론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욕구 만족과 욕구 좌절을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Bartholomew et al., 2011). 심리적 욕구 만족은 긍정적인 수행과 연습, 학습환경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와는 반대로 심리적 욕구 좌절은 부정적 수행과 연습, 학습환경에서 경험하는 것이다(송용관, 김승재, 천승현, 2017).

## 나. 심리적 욕구 선행연구

심리적 욕구는 유능성, 관계성, 자율성에 대한 만족으로써 자아 성장과 자아 발전을 위해 필수적 요소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반면 심리적 욕구 좌절은 유능성, 관계성, 자율성에 대한 좌절로 정의된다(송용관, 김승재, 천승현, 2017). 이는 체육수업 혹은 스포츠 상황 속에서 주요한 타자에 의한 압력과 통제로 인해 느끼게 되는 좌절감을 의미한다(Bartholomew et al., 2011).

심리적 욕구 만족은 지도자, 교사, 동료와 같은 주요한 타자에 영향을 받는 요소로써 체육교육 및 스포츠 상황에서 폭넓게 연구됐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인간 경험에서 나오는 긍정적 부분과 관련된 욕구 만족에만 주요 관심을 두었고 연구를 진행해왔다. 심리적 욕구 만족의 경우 긍정적 정서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던 반면 부정적 정서와는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Gagne, Ryan & Bargmann, 2003). 또한, 심리적 욕구 만족은 신체적, 정서적 소진과 같은 부정적 요소들과의 상관관계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Quested & Duda, 2010).

심리적 욕구는 다양한 동기, 정서, 행동 변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변인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확장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선수들의 수행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신력(mental toughness)에 있어서 상호소통방식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시도들도 이루어지고 있다(송용관, 천승현, 황승현, 2017; Anthony, Gordon, Gucciardi, & Dawson, 2017; Madigan, & Nicholls, 2017; Mahoney, Gucciardi, Ntoumanis, & Mallet, 2014; Gucciardi, 2017). 심리적 욕구 만족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대부분 긍정적 부분을 평가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주요타자(지도자, 교사, 감독, 부모, 동료)가 나를 지지, 수용, 이해해준다” 등의 문항처럼 긍정적 요소를 질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송용관, 김승재, 천승현, 2017). 반면 심리적 욕구가 좌절되거나 방해받은 선수들은 정신력 수준이 낮거나 인간의 어두운 부분(darker side)을 들여다보게 되며 욕구 좌절은 부정적 요소들을 더욱 명확하게 예측하고 설명한다(Bartholomew et al., 2011). 체육 영역에서는 심리적 욕구 만족을 측정할 때, 긍정적 행동 및 정서적 동기와 같은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다. 그러나 심리적 욕구 좌절과 같은 부정적 정서 및 인지행동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욕구 만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의 결과는 체육수업 및 스포츠 상황에서 학생들의 긍정적 심

리 욕구 만족은 긍정적 결과를 예측하고 설명한다. 반면 부정적 결과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예측력과 설명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송용관, 김승재, 천승현, 2017; Bartholomew et al., 2011).



#### 4. 집단 효능감

효능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지식 등이 특정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성공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믿음 또는 신념이며 개인과 집단, 조직 차원에서 적용되어 진다(Bandura, 1982; Gist, 1987). 효능감은 Bandura(1977)가 최초로 제시한 개념으로써 믿는 대상에 따라 자기 능력에 대해 믿는 자아효능감과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 능력을 믿는 집단 효능감(Collective Efficacy)로 구분되어 진다.

<그림 2>에 제시된 것처럼, 집단 효능감을 구성하는 선행변인은 과거 수행, 언어 설득, 대리경험, 리더십, 집단 응집력, 집단 크기 등이 있다(Zaccaro, Blair, Peterson, Zazanis, 1995). 다양한 요인 중에서도 과거 수행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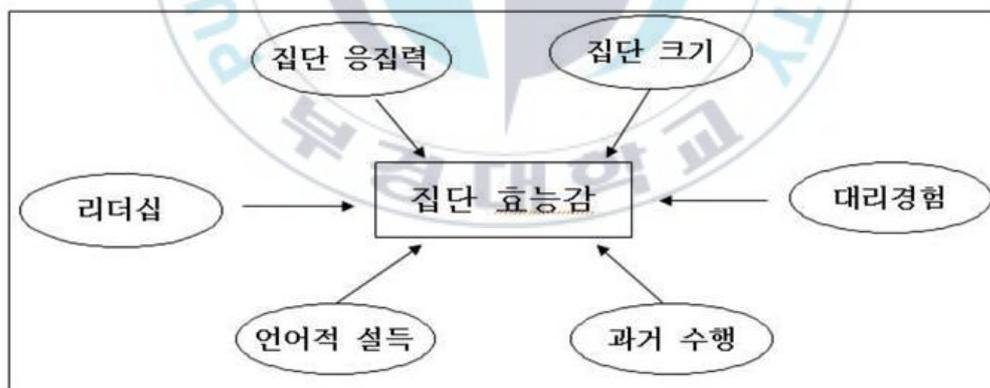


그림 7 집단 효능감 선행변인

효능감 관련 초기 연구들은 대부분 자기효능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부분 경영 활동이 개인보다는 개인들의 모임 또는 집단 활동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집단 효능감의 중요성은 갈수록 더

해지고 있으며(Klimoski & Mohammed, 1994), 이에 집단 효능감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김진만, 2012). 집단 효능감은 두 가지 믿음으로 구성할 수 있다(윤석균, 2015; Zaccaro et al., 1995). 첫째, 현저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팀 능력에 대한 믿음(Spink, 1990)과 둘째, 협동능력을 통해 집단이 팀의 원천을 이끌어내고 공통 목표와 결과를 향해 협동 행동하는 팀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지준희, 2012).

집단의 공유 신념(Group Efficacy)으로써의 집단 효능감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구성원 사이의 판단에 있어 많은 상호의존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집단 능력에 대한 지각은 집단 내에서 실제 상황과 함께 집단 내 타 구성원들이 상황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또한 구성원들 간 자신의 해석을 어떠한 방식으로 교류하는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공유된 신념으로서의 집단 효능감이 강조되는 것이다(지준희, 2012; Little & Madigan, 1994). 집단 구성원들은 능력과 지식의 혼합, 집단 행위의 조정 과정, 집단성과 등과 같은 새로운 자극을 경험하며(주현정, 2016; Seijts, Latham, & Whyte, 2000), 이러한 집단 효능감 형성 과정은 <그림2>와 같다(최창호,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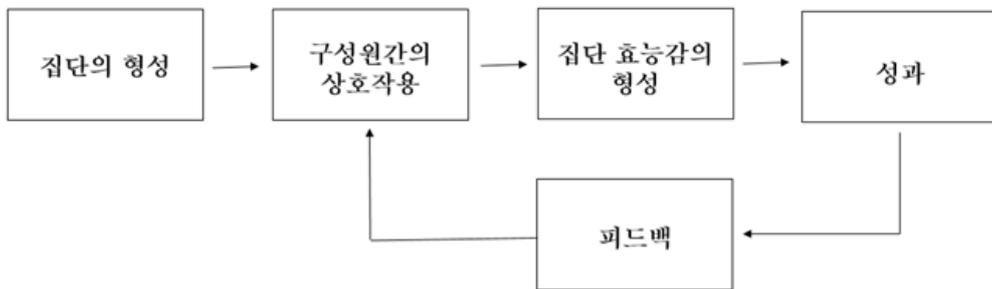


그림 8 집단 효능감의 형성 과정(최창호, 2000)

집단 효능감이 형성되는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첫째, 집단이 형성되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경험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 스스로 집단 구성원임을 지각하며 각자 다양한 수준에서의 자기효능감을 지각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Gibson, 1995). 둘째, 형성된 집단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며, 각 구성원은 습득한 정보를 개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지각하는 효능감이 달라진다고 한다(Bandura, 1986; Gist & Mitchell, 1992). 셋째, 집단 구성원 사이의 감정 태도가 초반부에 설정되고, 집단 목표달성을 위한 각자의 노력 투입 수준을 결정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속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Bandura, 1997). 넷째, 집단 효능감의 지각이 다양한 집단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앞선 경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과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이 형성되는 단계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집단 효능감은 개인이 자신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소속 집단 전체로 확장되어 '자기가 속한 집단이 특정 과업을 수행할 때 항상 일정수준 이상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야구선수를 대상으로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욕구, 자기결정동기, 집단 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확률표본추출 방법 중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s)을 사용하여 부산, 경남, 경북지역 9개 고등학교의 고교야구팀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엘리트 야구선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뒤,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질문지를 배부한 뒤 자기평가 기입법으로 질문내용에 응답을 받아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설문지 426부 중 불성실한 응답자 15명을 제외한 411명의 설문지를 가지고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학년 분포는 1학년은 162명(39.4%), 2학년은 128명(31.1%), 3학년은 121명(29.4%)으로 나타났고, 야구 경력은 5년 미만인 50명(12.2%), 5년 이상~7년 미만이 181명(44.0%), 7년 이상~9년 미만이 180명(43.8%)으로 나타났다. 포지션은 투수가 165명(40.1%), 포수가 30명(7.3%), 내야수가 135명(32.8%), 외야수가 81명(19.7%)으로 나타났고, 입상 성적은 우승이 86명(20.9%), 준우승이 9명(2.2%), 4강이 66명(16.1%), 8강이 143명(34.8%), 16강이 107명(26.0%)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N=411)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학년	1학년	162	39.4
	2학년	128	31.1
	3학년	121	29.4
야구 경력	5년 미만	50	12.2
	5년 이상~7년 미만	181	44.0
	7년 이상~9년 미만	180	43.8
포지션	투수	165	40.1
	포수	30	7.3
	내야수	135	32.8
	외야수	81	19.7
입상 성적	우승	86	20.9
	준우승	9	2.2
	4강	66	16.1
	8강	143	34.8
	16강	107	26.0

## 2.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규명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사용한 양적 접근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각 설문지의 문항들은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이미 검사지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이 확인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였으며 총 8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설문지의 문항과 구성내용은 다음<표 2>과 같다.

**표 2. 측정 도구의 구성**

항목	구성내용(문항 수)	문항 수
개인적 특성	학년(1)	4
	야구 경력(1)	
	포지션(1)	
	입상 경력(1)	
삼분법적 효능감	자기효능감(9)	27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9)	
	타인에 의한 자기효능감(9)	
심리적 욕구 만족	자율성(5)	14
	유능성(5)	
	관계성(4)	
자기결정동기	내적 동기(4)	20
	확인 규제(4)	
	의무감 규제(4)	
	외적규제(4)	
	무동기(4)	
집단 효능감	팀 전력(4)	16
	지도자 신뢰(4)	
	의사소통(5)	
전체	훈련(3)	81

**가. 측정 도구의 구성내용**

(1) 삼분법적 자기효능감

삼분법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Jackson 등(2012)이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효능감 9문항,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 9문항, 타인에

의한 자기효능감 9문항 등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7점 리커트(1점=절대 아니다, 7점=매우 그렇다)로 되어 있다.

**표 3.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설문 문항**

변인	설문 문항
자기 효능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에서 나는 매번 최선을 다한다.</li> <li>- 훈련에서 나는 운동(과제)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li> <li>- 훈련에서 나는 익숙하지 않거나 어려운 활동이 주어질 때 열정적으로 참여한다.</li> <li>- 훈련에서 나는 가장 어려운 활동일지라도 내가 배우는 모든 활동과 기술들을 학습한다.</li> <li>- 훈련에서 나는 매번 감독(코치)님이 제시한 훈련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다.</li> <li>- 훈련에서 나는 내가 배운 기술들을 모두 잘 수행한다.</li> <li>- 훈련에서 나는 어렵거나 익숙하지 않은 활동이라도 훈련 시간에 다른 활동들을 모두 시도한다.</li> <li>- 훈련에서 나는 나의 기술들을 연습하고 향상시킨다.</li> <li>- 훈련에서 나는 대항전(경기나 게임)을 할 때마다 내가 지닌 기술들을 잘 수행한다.</li> </ul>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코치)님은 “내가 매번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한다.</li> <li>- 감독(코치)님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라고 생각한다.</li> <li>- 감독(코치)님은 내가 “익숙하지 않거나 어려운 활동이 주어질 때도 열정적으로 참여한다”라고 생각한다.</li> <li>- 감독(코치)님은 내가 “가장 어려운 활동일지라도 내가 배우는 모든 활동과 기술들을 잘 학습한다”라고 생각한다.</li> <li>- 감독(코치)님은 내가 “매번 감독(코치)님이 제시한 훈련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다”라고 생각한다.</li> <li>- 감독(코치)님은 내가 “배운 기술들을 모두 잘 수행한다”라고 생각한다.</li> </ul>

- 
- 감독(코치)님은 내가 “어렵거나 익숙하지 않은 활동이라도 훈련시간에 다른 활동들을 모두 시도한다”라고 생각한다.
  - 감독(코치)님은 내가 “나의 기술들을 연습하고 향상시킨다”라고 생각한다.
  - 감독(코치)님은 내가 “대항전(경기나 게임)을 할 때마다 내가 지닌 운동기술을 잘 발휘하고 좋은 수행을 보인다”고 생각한다.
- 
- 감독(코치)님은 나를 위해 훈련이 항상 충분히 활동적이며 에너지 넘치도록 한다.
  - 감독(코치)님은 힘들거나 익숙하지 않은 활동을 할 때에도 나에게 동기부여를 한다.
  - 감독(코치)님은 내가 학습해야 하는 모든 활동이나 스포츠에서 전문가이다.
  - 감독(코치)님은 익숙하지 않거나 어려운 활동을 할 때에도 훈련이 항상 즐거울 수 있도록 한다.
  - 감독(코치)님은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실수를 할 때에도 체육수업이 항상 나를 격려 응원한다.
  - 감독(코치)님은 내가 잘하도록(향상되도록) 충분한 주의와 피드백(정보)을 제공한다.
  - 감독(코치)님은 훈련이 흥미롭게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 감독(코치)님은 항상 모든 선수를 공평하게 대한다.
  - 감독(코치)님은 나를 위해 훈련이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도록 한다.
- 

타인에 의한  
자기효능감

## (2) 심리적 욕구 만족

심리적 욕구에 대한 질문지는 심리적 욕구 만족과 좌절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우선 심리적 욕구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Wilson, Rogers, Rodgers와 Wild(2006)가 개발한 심리적 욕구 척도(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Exercise Scale)로 송용관 등(2016)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가

다. 이 척도는 자율성 5문항, 유능성 5문항, 관계성 4문항 등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7점 리커트(1점=절대 아니다, 7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심리적 욕구 만족에 대한 설문 문항**

변인	설문 문항
자율성	- 내가 연습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다.
	- 내가 하고 싶은 운동기술 및 활동과 관련하여 나의 의견이나 의사를 밝힐 수 있다.
	- 내가 좋아하고 원하기 때문에 이 활동에 참여한다.
	- 나는 연습 활동을 함에 있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낀다.
유능성	- 내가 선호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선택과 기회가 많다.
	- 나는 야구를 상당히 잘한다고 생각한다.
	- 나는 내 실력에 대해 만족감을 느낀다(만족한다).
	- 야구훈련, 경기한 후 내 능력이 꽤 괜찮다고 생각을 많이 한다.
관계성	- 나의 운동능력 및 실력은 꽤 좋은 편이다.
	- 나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고 느낀다.
	-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낀다.
	- 나는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 나는 인격체로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 나는 편안함을 느낀다.

### (3) 자기결정동기

자기결정동기는(Vlachopoulos, Katartzi, Kontou, Moustaka, & Goudas, 2011)가 개발한 지각된 인과소재 척도(Perceived Locus of Causality Scale; PLOC)를 송용관, 천승현(2014)이 국내 실정에 맞게 번안·수정 하였으며, 김보람(2018), 천승현 등(2018)의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이 척도는 내적 동기 4문항, 확인 규제 4문항, 의무감 규제 4문항, 외적규제 4문항, 무동기 4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7점 리커트(1점=절대 아니다, 7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표 5. 자기결정동기에 대한 설문 문항**

변인	설문 문항
내적 동기	- 훈련이 재미있으므로
	-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즐거우므로
	- 훈련이 나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즐거우므로
확인 규제	- 나는 운동기술을 배우길 원하기 때문에
	- 훈련을 잘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 야구를 잘하고 싶으므로
	- 내 삶의 다른 부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배울 수 있으므로
의무감 규제	- 감독(코치)님이 나를 팬찮은 선수라고 생각하길 원하기 때문에
	- 훈련을 참여하지 않으면, 스스로에(나 자신에) 대해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훈련에 참여한다.
	- 다른 선수들이 내가 야구를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하길 원하기 때문에
	-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그것으로 인해 성가신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외적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li> <li>- 나는 훈련에 참여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li> <li>- 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면 감독(코치)님이 야단치기 때문에</li> <li>- 해야만 하는 규칙·규정이기 때문에</li> </ul>
무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왜 훈련에 참여하는지 모르겠다.</li> <li>- 나는 왜 우리가 훈련에 참여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li> <li>- 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시간이 아깝다고 느낀다(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li> <li>- 나는 훈련을 벗어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훈련에 참여한다.</li> </ul>

#### (4) 집단 효능감

집단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Shorts 등(2005)이 개발한 집단 효능감 척도(Collective Efficacy Questionnaire for Sports; CEQS)를 사용하였다. 부가적으로 Shorts et al. (2005)의 척도를 기반으로 국내 축구선수들의 집단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유진과 임수원(2009)의 축구 집단 효능감 검사지를 부가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집단 효능감에 대한 척도는 팀 전력 4문항, 지도자 신뢰 4문항, 의사소통 5문항, 훈련 3문항 등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7점 리커트(1점=절대 아니다, 7점=매우 그렇다)로 되어있다.

**표 6. 집단 효능감에 대한 설문 문항**

변인	설문 문항
팀 전력	- 우리 팀은 강팀을 상대로 많이 이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팀은 세트플레이를 잘한다.</li> <li>- 우리 팀은 선수층이 두껍다.</li> <li>- 우리 팀은 선수들은 상대 팀 선수보다 커 보인다.</li> </ul>
지도자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팀은 감독님의 전술이 좋다.</li> <li>- 우리 팀은 실력 있는 감독(코치)님한테 배운다.</li> <li>- 우리 팀은 코치진을 믿는다.</li> <li>- 우리 팀은 코치진과 선수 간에 신뢰가 깊다.</li> </ul>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팀은 선수 서로 간에 믿는다.</li> <li>- 우리 팀은 지합 중에 대화를 많이 한다.</li> <li>- 우리 팀은 서로 간에 호흡이 잘 맞는다.</li> <li>- 우리 팀은 서로 팀 동료를 위쪽으로 한다.</li> <li>- 우리 팀은 선수 간에 갈등을 해소한다.</li> </ul>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팀은 경기를 위한 많은 훈련을 해왔다.</li> <li>- 우리 팀은 훈련을 열심히 해왔다.</li> <li>- 우리 팀은 상대 팀을 미리 분석해 두었다.</li> </ul>

## 나.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

### (1) 측정 도구의 신뢰도 분석

신뢰도인 내적 일관성 검정을 위해 Cronbach's  $\alpha$  신뢰도 분석을 진행했다. 본 연구 신뢰도 분석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각 변인의 Cronbach's  $\alpha$  값은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의 자기효능감 .855,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 .900, 타인에 의한 자기효능감 .905, 전체는 .934으로 나타나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리적 욕구 만족에서는 자율성 .844, 유능

성 .901, 관계성 .821, 전체 신뢰도는 .843으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기결정 동기의 내적 동기 .944, 확인 규제 .822, 의무감 규제 .780, 외적 규제 .859, 무동기 .955, 전체 신뢰도는 .899으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단 효능감의 팀 전력 .796, 지도자 신뢰 .871, 의사소통 .896, 훈련 .795, 전체는 .927으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가 .780~.955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측정 도구의 신뢰도 분석

항목	요인 문항(문항 수)	신뢰도 Cronbach's $\alpha$	
삼분법적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9)	.855	.934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9)	.900	
	타인에 의한 자기효능감(9)	.905	
심리적 욕구 만족	자율성(5)	.844	.843
	유능성(5)	.901	
	관계성(4)	.821	
자기결정통기	내적 동기(4)	.944	.899
	확인 규제(4)	.822	
	의무감 규제(4)	.780	
	외적규제(4)	.859	
	무동기(4)	.955	
집단 효능감	팀 전력(4)	.796	.927
	지도자 신뢰(4)	.871	
	의사소통(5)	.896	
	훈련(3)	.795	

(2)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각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관측 변인이 타당하게 구성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요인별로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진행했다.

첫째, 삼분법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측정모형<그림 4>의 적합도<표 8>는 절대 적합지수인 CMIN=1333.09(p<.001), RMSEA=0.088는 기준치인 0.1보다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증분적합지수인 TLI=0.913, CFI=0.929는 기준치인 0.9보다 높은 값으로 나타나 기준 적합도 수준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나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의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측정 도구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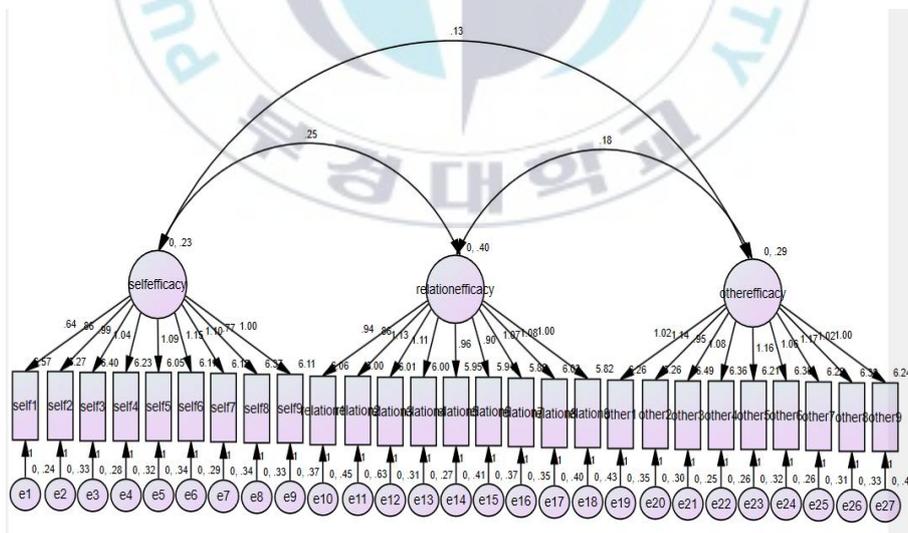


그림 9. 삼분법적 자기효능감 측정모형

표 8. 삼분법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적합도 지수

변인	절대적합지수				충분적합지수		
	CMIN	DF	P	RMSEA	TLI	CFI	
확인적 요인분석	3요인	1333.09	321	.000	.088	.913	.929
	수용기준			p<.05	0.1 이하	0.9 이상	0.9 이상

둘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측정모형<그림 5>의 적합도<표 9>는 유능성 5번 문항을 삭제한 결과로 절대적합지수인 CMIN=151.50(p<.001), RMSEA=0.059는 기준치인 0.1보다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충분적합지수인 TLI=0.956, CFI=0.965는 기준치인 0.9보다 큰 값으로 나타나 기준 적합도 수준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나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심리적 욕구 만족의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측정 도구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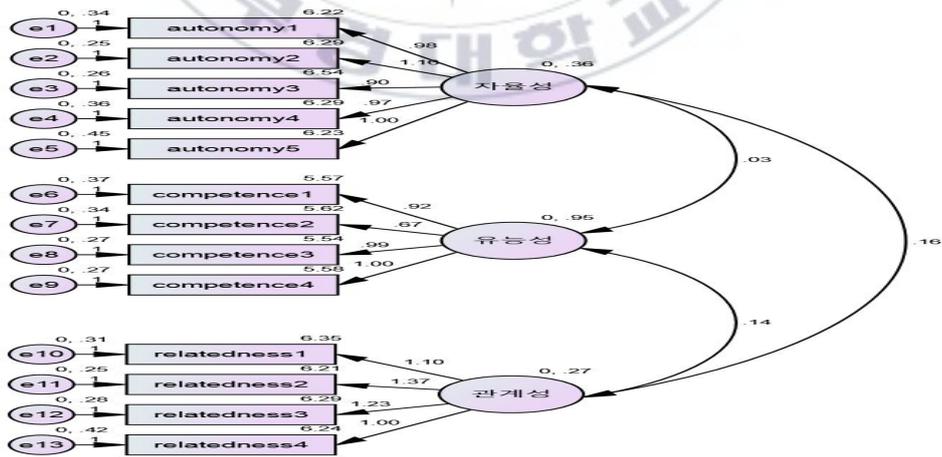


그림 10.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측정모형

표 9.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적합도 지수(유능성 5번 문항 삭제됨)

변인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CMIN	DF	P	RMSEA	TLI	CFI	
확인적 요인분석	3요인 수용기준	151.50	62	.000	.059	.956	.965
				p<.05	0.1 이하	0.9 이상	0.9 이상

셋째, 자기결정동기 척도의 측정모형<그림 6>의 적합도<표 10>는 의무감 규제 1번 문항 삭제 결과로 절대적합지수인 CMIN=685.99(p<.001), RMSEA=0.097 기준치인 0.1보다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증분적합지수인 TLI=0.904, CFI=0.912는 기준치인 0.9보다 높은 값으로 나타나 기준 적합도 수준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나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RMSEA는 수렴 적합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대체로 0.08~0.10 범위에 속하면 양호한 적합도로 평가한다(Hu & Bentler, 1998, 1999; Marsh, Hau, Wen, 2004; Schermelleh-Engel & Moosbrugger, 2003). 앞서 제시한 RMSEA이 양호한 범위의 값이 나오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CFI 값이 0.9~0.95 사이일 때는 모델의 적합도를 양호한 것으로 판단 한다(Schermelleh-Engel & Moosbrugger, 2003).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자기결정 동기의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측정도구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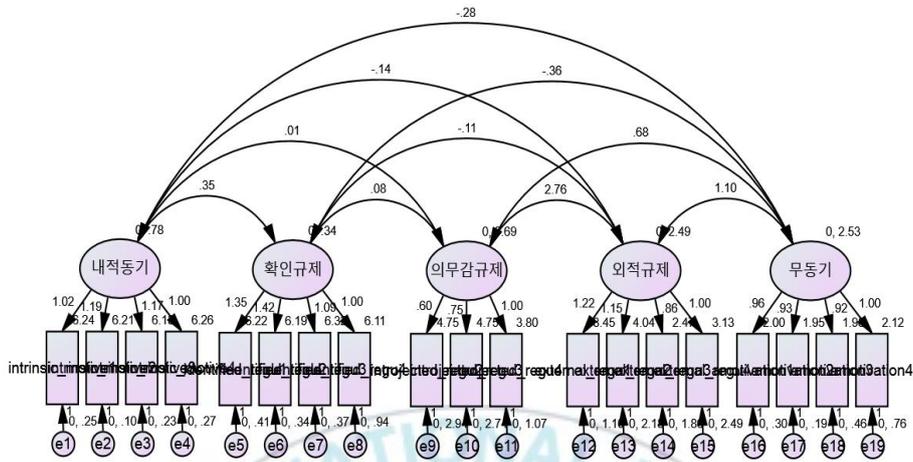


그림 11. 자기결정동기 측정모형

표 10. 자기결정동기 척도의 적합도 지수(의무감 규제 1번 문항 삭제됨)

변인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CMIN	DF	P	RMSEA	TLI	CFI	
확인적 요인분석	3요인 수용기준	685.99	142	.000	.097	.904	.912
			$p < .05$	0.1 이하	0.9 이상	0.9 이상	

넷째, 집단 효능감 척도의 측정모형<그림 7>의 적합도<표 11>는 절대적합지수인 CMIN=392.22( $p < .001$ ), RMSEA=0.086는 기준치인 0.1보다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증분적합지수인 TLI=0.908, CFI=0.924는 기준치인 0.9보다 큰 값으로 나타나 기준 적합도 수준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나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집단 효능감

의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측정 도구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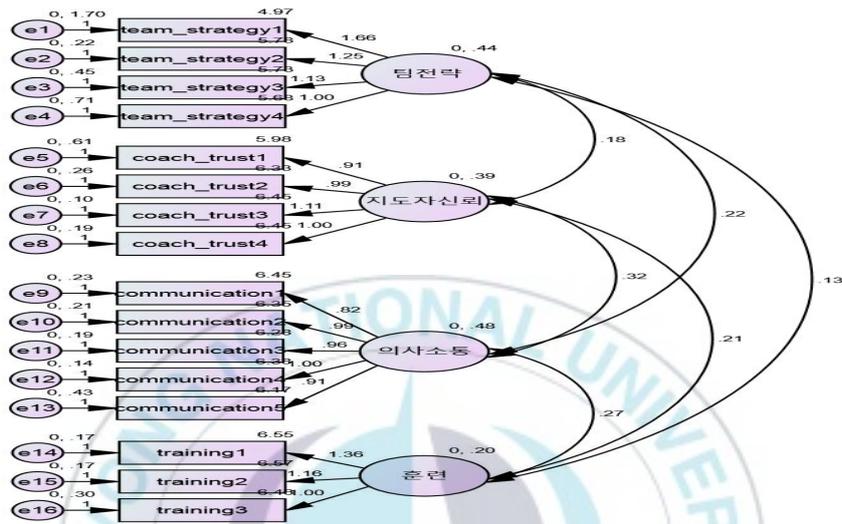


그림 12. 집단 효능감 측정모형

표 11. 집단 효능감 척도의 적합도 지수

변인	절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CMIN	DF	P	RMSEA	TLI	CFI	
확인적 요인분석	3요인 수용기준	392.22	98	.000	0.086	0.908	0.924
				p<.05	0.1 이하	0.9 이상	0.9 이상

### 3. 자료처리

본 논문의 설문조사 과정은 연구자가 사전에 연구의 목적을 알리고 이에 동의한 조사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SPSS와 AMOS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목적에 따라 분석하였고, 통계의 유의수준은 0.5로 하여 판단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개인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둘째, 삼분법적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욕구 만족, 심리적 욕구 좌절, 자기결정동기, 집단 효능감 척도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분석(Cronbach's  $\alpha$ ),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하였다.

셋째, 삼분법적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욕구 만족, 자기결정동기, 집단 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correlation analysis) 분석을 하였다.

넷째,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욕구 만족, 심리적 욕구 좌절, 자기결정동기, 집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기술통계

모든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여 제시하였다.

<표 12>에 제시된 것처럼, 삼분법적 자기효능감 하위요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 1~9번 문항은 7점 만점에 평균 6.05~6.57점(SD=0.57~0.74, 왜도= -1.276~-0.505, 첨도= -0.133~2.434)으로 나타났다. 관계추론 자기효능감 1~9번 문항은 7점 만점에 평균 5.82~6.03점(SD=0.838~0.968, 왜도= -1.405~-0.113, 첨도= -1.196~4.117)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의한 자기효능감 1~9번 문항은 7점 만점에 평균 6.21~6.49점(SD=0.717~0.846, 왜도= -1.167~-0.688, 첨도=-0.682~0.571)으로 나타났다.

West, Finch와 Curran(1995)은 정규 분포의 기준을  $|왜도| < 3$ ,  $|첨도| < 8$ 로 제시하고 있는데, 삼분법적 자기효능감 하위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해 본 결과 왜도 절대값이 2 미만, 첨도 절대값이 5미만의 값을 보여 모두 정규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2. 삼분법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기술 통계량

하위 개념	문항	N	M	SD	왜도	첨도
자기 효능감	자기효능감 1	411	6.57	.577	-.982	-.029
	자기효능감 2	411	6.27	.707	-.729	.351
	자기효능감 3	411	6.40	.713	-1.276	2.434
	자기효능감 4	411	6.23	.753	-.714	.255
	자기효능감 5	411	6.05	.784	-.517	.005

	자기효능감 6	411	6.11	.773	-.822	1.705
	자기효능감 7	411	6.18	.784	-.673	.044
	자기효능감 8	411	6.37	.685	-.914	.707
	자기효능감 9	411	6.11	.773	-.505	-.133
관계 추론 자기 효능감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 1	411	6.06	.898	-1.171	3.731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 2	411	6.00	.968	-1.405	4.117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 3	411	6.01	.911	-1.022	3.063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 4	411	6.00	.875	-.210	-1.196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 5	411	5.95	.886	-.745	1.646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 6	411	5.91	.838	-.113	-1.010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 7	411	5.88	.904	-.260	-.537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 8	411	6.03	.936	-.999	2.601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 9	411	5.82	.916	-.659	2.261
타인에 의한 자기 효능감	타인에 대한 자기효능감 1	411	6.26	.809	-.781	-.110
	타인에 대한 자기효능감 2	411	6.26	.827	-.688	-.682
	타인에 대한 자기효능감 3	411	6.49	.717	-1.167	.366
	타인에 대한 자기효능감 4	411	6.36	.778	-.875	-.295
	타인에 대한 자기효능감 5	411	6.21	.846	-.845	.571
	타인에 대한 자기효능감 6	411	6.38	.769	-.859	-.460
	타인에 대한 자기효능감 7	411	6.29	.845	-.785	-.491
	타인에 대한 자기효능감 8	411	6.38	.795	-1.006	-.036
	타인에 대한 자기효능감 9	411	6.24	.846	-.729	-.573

심리적 만족 욕구 하위요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자율성 1~5번 문항은 7점 만점에 평균 6.22~6.54점( $SD=0.74\sim 0.90$ , 왜도=  $-1.673\sim -0.531$ , 첨도=  $-1.058\sim 2.769$ )으로 나타났다. 유능성 1~5번 문항은 7점 만점에 평균 5.54~6.23점( $SD=0.873\sim 1.105$ , 왜도=  $-1.424\sim 0.071$ , 첨도=  $-0.182\sim 4.687$ )으로 나타났다. 관계성 1~4번 문항은 7점 만점에 평균 6.21~6.35점

(SD=0.802~0.875, 왜도= - 1.321~-0.695, 첨도=-0.459~3.650)으로 나타났다.

West, Finch와 Curran(1995)은 정규분포이 기준을  $|왜도| < 3$ ,  $|첨도| < 8$ 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심리적 만족 욕구 하위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해 본 결과 왜도 절대값이 2미만, 첨도 절대값이 5미만의 값을 보여 모두 정규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3.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의 기술 통계량**

하위 개념	문항	N	M	SD	왜도	첨도
자율성	자율성 1	411	6.22	.830	-.531	-1.058
	자율성 2	411	6.29	.855	-.958	.188
	자율성 3	411	6.54	.743	-1.673	2.769
	자율성 4	411	6.29	.836	-.964	.729
	자율성 5	411	6.23	.900	-.986	1.007
유능성	유능성 1	411	5.57	1.083	-1.215	3.805
	유능성 2	411	5.62	.873	-.071	-.182
	유능성 3	411	5.54	1.095	-1.424	4.687
	유능성 4	411	5.58	1.105	-1.238	3.800
	유능성 5	411	6.23	.931	-1.023	1.245
관계성	관계성 1	411	6.35	.802	-1.321	3.650
	관계성 2	411	6.21	.875	-.991	1.820
	관계성 3	411	6.29	.834	-1.205	2.872
	관계성 4	411	6.24	.832	-.695	-.459

자기결정동기 하위요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내적 동기 1~4번 문항은 7점 만점에 평균 6.13~6.26점(SD=1.033~1.143, 왜도= - 1.747~-1.560, 첨도 = 2.623~4.125)으로 나타났다. 확인 규제 1~4번 문항은 7점 만점에 평균

6.11~6.32점(SD=0.883~1.134, 왜도= - 1.6290~-1.252, 첨도= 0.984~3.456)으로 나타났다. 의무감 규제 1~4번 문항은 7점 만점에 평균 3.80~5.23점(SD=1.876~2.197, 왜도= - 0.805~0.081, 첨도=-1.416~-0.556)으로 나타났다. 외적규제 1~4번 문항은 7점 만점에 평균 2.47~4.04점(SD=1.924~2.336, 왜도=-0.103~1.045, 첨도=-1.576~0.217)으로 나타났다. 무동기 1~4번 문항은 7점 만점에 평균 1.95~2.12점(SD=1.540~1.816, 왜도=1.611~1.806, 첨도=1.375~2.457)으로 나타났다.

West, Finch와 Curran(1995)은 정규 분포의 기준을  $|왜도| < 3$ ,  $|첨도| < 8$ 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자기결정동기 하위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해 본 결과 왜도의 절대값이 2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5미만의 값을 보여 모두 정규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4. 자기결정동기 척도의 기술 통계량**

하위 개념	문항	N	M	SD	왜도	첨도
내적 동기	내적 동기 1	411	6.24	1.033	-1.728	3.871
	내적 동기 2	411	6.21	1.099	-1.574	2.623
	내적 동기 3	411	6.13	1.143	-1.560	2.759
	내적 동기 4	411	6.26	1.023	-1.747	4.125
확인 규제	확인 규제 1	411	6.22	1.019	-1.629	3.456
	확인 규제 2	411	6.19	1.015	-1.466	2.883
	확인 규제 3	411	6.32	.883	-1.252	.984
	확인 규제 4	411	6.11	1.134	-1.462	2.156
의무감 규제	의무감 규제 1	411	5.23	1.876	-.805	-.556
	의무감 규제 2	411	4.75	2.071	-.531	-1.119
	의무감 규제 3	411	4.75	2.197	-.491	-1.220
	의무감 규제 4	411	3.80	2.186	.081	-1.416
외적	외적 규제 1	411	3.45	2.195	.295	-1.365

규제	외적 규제 2	411	4.04	2.336	-.103	-1.576
	외적 규제 3	411	2.47	1.924	1.045	-.217
	외적 규제 4	411	3.13	2.235	.540	-1.236
무동기	무동기 1	411	2.00	1.618	1.713	1.950
	무동기 2	411	1.95	1.540	1.806	2.457
	무동기 3	411	1.98	1.609	1.790	2.252
	무동기 4	411	2.12	1.816	1.611	1.375

집단 효능감 하위요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팀 전력 1~4번 문항은 7점 만점에 평균 4.97~5.78점(SD=0.950~1.704, 왜도= -1.172~-0.427, 첨도= -0.397~2.881)으로 나타났다. 지도자 신뢰 1~4번 문항은 7점 만점에 평균 5.98~6.45점(SD=0.758~0.970, 왜도= -1.196~-1.019, 첨도= 0.644~3.737)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1~5번 문항은 7점 만점에 평균 6.17~6.45점(SD=0.742~0.912, 왜도= -1.059~-0.661, 첨도=-0.764~0.070)으로 나타났다. 훈련 1~3번 문항은 7점 만점에 평균 6.46~6.57점(SD=0.663~0.736, 왜도= -1.754~-0.917, 첨도=-0.462~3.816)으로 나타났다.

West, Finch와 Curran(1995)은 정규분포 기준을  $|왜도| < 3$ ,  $|첨도| < 8$ 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집단 효능감 하위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해 본 결과 왜도의 절대값이 2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4미만의 값을 보여 모두 정규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집단 효능감 척도의 기술통계량**

하위 개념	문항	N	M	SD	왜도	첨도
팀 전략	팀 전략 1	411	4.97	1.704	-.622	-.397
	팀 전략 2	411	5.78	.950	-.458	.722

	팀 전략 3	411	5.73	1.006	-.427	.411
	팀 전략 4	411	5.68	1.074	-1.172	2.881
지도자 신뢰	지도자 신뢰 1	411	5.98	.970	-1.192	3.737
	지도자 신뢰 2	411	6.33	.798	-1.019	.644
	지도자 신뢰 3	411	6.45	.762	-1.211	.767
	지도자 신뢰 4	411	6.45	.758	-1.196	.772
의사 소통	의사소통 1	411	6.45	.742	-1.059	.005
	의사소통 2	411	6.35	.826	-.990	.070
	의사소통 3	411	6.28	.798	-.661	-.764
	의사소통 4	411	6.38	.791	-.964	-.162
	의사소통 5	411	6.17	.912	-.799	-.173
훈련	훈련 1	411	6.55	.736	-1.754	3.816
	훈련 2	411	6.57	.663	-1.382	1.022
	훈련 3	411	6.46	.705	-.917	-.462

## 2. 상관관계 분석

연구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16>과 같다. 자기효능감과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 $r=.716, p<.01$ ), 타인에 대한 자기효능감( $r=.432, p<.01$ ), 자율성( $r=.433, p<.01$ ), 유능성( $r=.376, p<.01$ ), 관계성( $r=.375, p<.01$ ), 내적 동기( $r=.317, p<.01$ ), 확인 규제( $r=.209, p<.01$ ), 팀 전력( $r=.294, p<.01$ ), 지도자 신뢰( $r=.283, p<.01$ ), 의사소통( $r=.360, p<.01$ ), 훈련( $r=.274, p<.01$ ) 변인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외적규제( $r=-.158, p<.01$ ), 무동기( $r=-.142, p<.01$ ) 변인과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과 타인에 대한 자기효능감( $r=.473, p<.01$ ), 자율성

( $r=.349, p<.01$ ), 유능성( $r=.491, p<.01$ ), 관계성( $r=.410, p<.01$ ), 내적 동기( $r=.286, p<.01$ ), 확인 규제( $r=.179, p<.01$ ), 팀 전력( $r=.293, p<.01$ ), 지도자 신뢰( $r=.181, p<.01$ ), 의사소통( $r=.212, p<.01$ ), 훈련( $r=.196, p<.01$ ) 변인은 정적상관이 나타났고, 외적규제( $r=-.204, p<.01$ ) 변인과는 부적 상관을 지녔다.

타인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자율성( $r=.560, p<.01$ ), 관계성( $r=.422, p<.01$ ), 내적 동기( $r=.469, p<.01$ ), 확인 규제( $r=.442, p<.01$ ), 팀 전력( $r=.212, p<.01$ ), 지도자 신뢰( $r=.429, p<.01$ ), 의사소통( $r=.381, p<.01$ ), 훈련( $r=.380, p<.01$ ) 변인은 정적상관이 나타났고, 외적규제( $r=-.240, p<.01$ ), 무동기( $r=-.312, p<.01$ ) 변인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자율성과 유능성( $r=.116, p<.05$ ), 관계성( $r=.441, p<.01$ ), 내적 동기( $r=.436, p<.01$ ), 확인 규제( $r=.415, p<.01$ ), 팀 전력( $r=.199, p<.01$ ), 지도자 신뢰( $r=.391, p<.01$ ), 의사소통( $r=.362, p<.01$ ), 훈련( $r=.376, p<.01$ ) 변인은 정적상관이 나타났고, 외적규제( $r=-.162, p<.01$ ), 무동기( $r=-.240, p<.01$ ) 변인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유능성과 관계성( $r=.367, p<.01$ ), 내적 동기( $r=.099, p<.05$ ), 팀 전력( $r=.299, p<.01$ ), 지도자 신뢰( $r=.102, p<.05$ ), 의사소통( $r=.128, p<.01$ ), 훈련( $r=.112, p<.05$ ) 변인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관계성과 내적 동기( $r=.342, p<.01$ ), 확인 규제( $r=.269, p<.01$ ), 팀 전력( $r=.165, p<.01$ ), 지도자 신뢰( $r=.246, p<.01$ ), 의사소통( $r=.282, p<.01$ ), 훈련( $r=.267, p<.01$ ) 변인은 정적상관이 나타났고, 의무감 규제( $r=-.115, p<.05$ ), 외적규제( $r=-.250, p<.01$ ), 무동기( $r=-.164, p<.01$ ) 변인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내적 동기와 확인 규제( $r=.673, p<.01$ ), 의무감 규제( $r=.124, p<.05$ ), 팀 전력( $r=.237, p<.01$ ), 지도자 신뢰( $r=.339, p<.01$ ), 의사소통( $r=.342, p<.01$ ), 훈

련( $r=.313, p<.01$ ) 변인은 정적상관이 나타났고, 외적규제( $r=-.121, p<.05$ ), 무동기( $r=-.200, p<.01$ ) 변인과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확인 규제와 의무감 규제( $r=.170, p<.01$ ), 팀 전력( $r=.169, p<.01$ ), 지도자 신뢰( $r=.315, p<.01$ ), 의사소통( $r=.265, p<.01$ ), 훈련( $r=.288, p<.01$ ) 변인은 정적상관이 나타났고, 외적규제( $r=-.134, p<.01$ ), 무동기( $r=-.312, p<.01$ ) 변인과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의무감 규제와 외적규제( $r=.618, p<.01$ ), 무동기( $r=.120, p<.05$ ) 변인과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외적규제와 무동기( $r=.434, p<.01$ ) 변인과 정적상관이 나타났고, 팀 전력( $r=-.116, p<.05$ ), 지도자 신뢰( $r=-.183, p<.01$ ) 변인과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무동기와 지도자 신뢰( $r=-.206, p<.01$ ), 의사소통( $r=-.160, p<.01$ ), 훈련( $r=-.256, p<.001$ ) 변인과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팀 전력과 지도자 신뢰( $r=.392, p<.01$ ), 의사소통( $r=.411, p<.01$ ), 훈련( $r=.344, p<.01$ ) 변인과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지도자 신뢰와 의사소통( $r=.647, p<.01$ ), 훈련( $r=.640, p<.01$ ) 변인과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의사소통과 훈련( $r=.738, p<.01$ ) 변인과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표 16. 연구 변인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														
2	.716*	1													
3	.432*	.473**	1												
4	.433*	.349**	.560**	1											
5	.376*	.491**	.067	.116*	1										
6	.375*	.410**	.422**	.441**	.367**	1									
7	.317*	.286**	.469**	.436**	.099*	.342**	1								
8	.209*	.179**	.442**	.415**	.057	.269**	.673**	1							
9	-.070	-.061	.037	.033	-.060	-.115*	.124*	.170**	1						
10	-.158**	-.204**	-.240**	-.162**	-.056	-.250**	-.121*	-.134**	.618**	1					
11	-.142**	-.072	-.312**	-.240**	.095	-.164**	-.200**	-.312**	.120*	.434**	1				
12	.294*	.293**	.212**	.199**	.299**	.165**	.237**	.169**	-.014	-.116*	-.043	1			
13	.283*	.181**	.429**	.391**	.102*	.246**	.339**	.315**	.018	-.183**	-.206**	.392**	1		
14	.360*	.212**	.381**	.362**	.128**	.282**	.342**	.265**	.070	-.069	-.160**	.411**	.647**	1	
15	.274*	.196**	.380**	.376**	.112*	.267**	.313**	.288**	.077	-.086	-.256**	.344**	.640**	.738**	1
M	6.25	5.96	6.31	6.31	5.70	6.27	6.21	6.21	4.63	3.27	2.01	5.54	6.30	6.32	6.52
SD	.49	.67	.60	.65	.80	.67	.99	.78	1.61	1.82	1.54	.94	.68	.68	.58

- 삼분법적 자기효능감 (1.자기효능감, 2.관계 추론 자기효능감, 3.타인에 대한 자기효능감)
- 심리적 욕구 만족(4.자율성, 5.유능성, 6.관계성)
- 자기결정동기(7.내적 동기, 8.확인 규제, 9.의무감 규제, 10.외적 규제, 11.무동기)
- 집단 효능감(12.팀 전력, 13.지도자 신뢰, 14.의사소통, 15.훈련)

\*p<.05, \*\* p<.01

### 3.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욕구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욕구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표 17>.

<표 16>에 제시된 것처럼,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삼분법적 자기효능감과 자율성에 대한 회귀모형은 F값이 76.677의 값을 보였으며, 회귀식에 대한 R<sup>2</sup>은 .361로 36.1%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은 1.695로 확인되면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17.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욕구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 변수	$\beta$	S.E.	Beta	t	p	F-value	R <sup>2</sup> (adj R <sup>2</sup> )
자율성	(상수)	1.195	.360		3.321	.001	76.677***	.361 (.356)
	자기효능감	.375	.075	.285	4.964***	.000		
	관계 추론	-.077	.057	-.079	-1.346	.179		
	자기효능감 타인에 대한	.511	.049	.474	10.418***	.000		
	자기효능감							
Durbin-Watson=1.695								
유능성	(상수)	2.870	.470		6.104	.000	52.985***	.281 (.276)
	자기효능감	.150	.099	.092	1.519	.130		
	관계 추론	.635	.074	.531	8.527***	.000		
	자기효능감 타인에 대한	-.298	.064	-.224	-4.646***	.000		
	자기효능감							
Durbin-Watson=1.736								
관계성	(상수)	2.172	.404		5.371	.000	43.144***	.241 (.236)
	자기효능감	.154	.085	.113	1.811	.071		
	관계 추론	.196	.064	.196	3.069**	.002		
	자기효능감 타인에 대한	.312	.055	.280	5.652***	.000		
	자기효능감							
Durbin-Watson=1.58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위요인별로 Beta값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 (Beta=.285), 타인에 대한 자기효능감(Beta=.474)이 자율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반해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Beta=-.079)은 자율성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에 따라 자율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자기효능감과 타인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자율성을 돕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해준다.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삼분법적 자기효능감과 유능성에 대한 회귀모형은 F값이 52.985의 값을 보였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은 .281로 28.1%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은 1.736으로 확인되면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위요인별로 Beta값을 살펴보면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Beta=.531)이 유능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반해 타인에 대한 자기효능감(Beta=-.224)은 유능성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에 따라 유능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은 유능성을 돕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해준다.

삼분법적 자기효능감과 관계성에 대한 회귀모형은 F값이 43.144의 값을 보였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은 .241로 24.1%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은 1.587로 확인되면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위요인별로 Beta값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 (Beta=.113),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Beta=.196), 타인에 대한 자기효능감 (Beta=.280)이 관계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에 따라 관계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과 타인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관계성을 돕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해준다.



#### 4.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이 자기결정동기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이 자기결정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18>에 제시된 것처럼,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삼분법적 자기효능감과 자기결정동기(자율성동기)에 대한 회귀모형은 F값이 47.172의 값을 보였으며, 회귀식에 대한 R<sup>2</sup>은 .258로 25.8%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

표 18.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이 자기결정동기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 변수	$\beta$	S.E.	Beta	t	p	F-value	R <sup>2</sup> (adj R <sup>2</sup> )
	(상수)	1.273	.484		2.629	.009		
자율성 동기	자기효능감	.215	.102	.131	2.120*	.035	47.172***	.258 (.253)
	관계 추론	-.066	.077	-.055	-.866	.387		
	자기효능감 타인에 대한	.631	.066	.468	9.551***	.000		
	자기효능감							
Durbin-Watson=1.138								
	(상수)	6.929	1.052		6.584	.000		
통제 동기	자기효능감	-.098	.221	-.031	-.444	.658	3.736*	.027 (.020)
	관계 추론	-.231	.167	-.100	-1.386	.166		
	자기효능감 타인에 대한	-.156	.144	-.061	-1.088	.277		
	자기효능감							
Durbin-Watson=.979								
	(상수)	7.474	1.005		7.440	.000		
무동기	자기효능감	-.373	.211	-.120	-1.770	.077	17.029***	.112 (.105)
	관계 추론	.405	.159	.177	2.549*	.011		
	자기효능감 타인에 대한	-.878	.137	-.344	-6.405***	.000		
	자기효능감							
Durbin-Watson=1.699								

다. Durbin-Watson은 1.138로 확인되면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위요인별로 Beta값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Beta=.131), 타인에 대한 자기효능감(Beta=.468)이 자기결정동기(자율성동기)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반해 관계추론 자기효능감(Beta=-.055)은 자기결정동기(자율성동기)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에 따라 자기결정동기(자율성동기)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자기효능감과 타인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자율성동기를 돕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해준다.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삼분법적 자기효능감과 자기결정동기(통제동기)에 대한 회귀모형은 F값이 3.736의 값을 보였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은 .027로 2.7%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은 0.979로 확인되면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위요인별로 Beta값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Beta=-.031),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Beta=-.100), 타인에 대한 자기효능감(Beta=-.061)은 자기결정동기(통제동기)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에 따라 자기결정동기(통제동기)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삼분법적 자기효능감과 자기결정동기(무동기)에 대한 회귀모형은 F값이 17.029의 값을 보였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은 .112로 11.2%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은 1.699로 확인되면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위요인별로 Beta값을 살펴보면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Beta=.177)이 자기결정동기(무동기)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

에 반해 자기효능감( $Beta = -.120$ ), 타인에 대한 자기효능감( $Beta = -.344$ )은 자기결정동기(무동기)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에 따라 자기결정동기(무동기)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은 무동기를 돕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해준다.



## 5.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이 집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이 집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표 19>.

표 19.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이 집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 변수	$\beta$	S.E.	Beta	t	p	F-value	$R^2$ (adj $R^2$ )
팀 전략	(상수)	1.726	.612		2.819	.005	15.883***	.105 (.098)
	자기효능감	.301	.128	.159	2.342*	.020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	.199	.097	.143	2.058*	.040		
	타인에 대한 자기효능감	.118	.084	.076	1.409	.159		
Durbin-Watson=1.682								
지도자 신뢰	(상수)	2.446	.417		5.867	.000	36.351***	.211 (.206)
	자기효능감	.322	.087	.235	3.684***	.000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	-.185	.066	-.183	-2.810**	.005		
	타인에 대한 자기효능감	.467	.057	.415	8.203***	.000		
Durbin-Watson=1.828								
의사 소통	(상수)	2.119	.419		5.058	.000	36.058***	.210 (.204)
	자기효능감	.503	.088	.365	5.728***	.000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	-.202	.066	-.199	-3.050**	.002		
	타인에 대한 자기효능감	.358	.057	.317	6.267***	.000		
Durbin-Watson=1.891								
훈련	(상수)	3.480	.369		9.427	.000	26.874***	.165 (.159)
	자기효능감	.247	.077	.209	3.190**	.002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	-.102	.058	-.117	-1.742	.082		
	타인에 대한 자기효능감	.334	.050	.345	6.626***	.000		
Durbin-Watson=1.781								

\*p<.05, \*\* p<.01, \*\*\*p<.001

<표 19>에 제시된 것처럼,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삼분법적 자기효능감과 집단 효능감(팀 전략)에 대한 회귀모형은 F값이 15.883의 값을 보였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은 .105로 10.5%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은 1.682로 확인되면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위요인별로 Beta값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 (Beta=.159),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Beta=.143), 타인에 대한 자기효능감 (Beta=.076)이 집단 효능감(팀 전략)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에 따라 집단 효능감(팀 전략)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자기효능감과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은 팀 전략을 돕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해준다.

삼분법적 자기효능감과 집단 효능감(지도자 신뢰)에 대한 회귀모형은 F값이 36.351의 값을 보였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은 .211로 21.1%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은 1.828로 확인되면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위요인별로 Beta값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 (Beta=.235), 타인에 대한 자기효능감(Beta=.415)이 집단 효능감(팀 전략)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반해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Beta=-.183)은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에 따라 집단 효능감(지도자 신뢰)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자기효능감과 타인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지도자 신뢰를 돕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해준다.

삼분법적 자기효능감과 집단 효능감(의사소통)에 대한 회귀모형은 F값이

36.058의 값을 보였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은 .210로 21.0%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은 1.891로 확인되면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위요인별로 Beta값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Beta=.365), 타인에 대한 자기효능감(Beta=.317)이 집단 효능감(의사소통)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반해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Beta=-.199)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에 따라 집단 효능감(의사소통)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자기효능감과 타인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의사소통을 돕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해준다.

삼분법적 자기효능감과 집단 효능감(훈련)에 대한 회귀모형은 F값이 26.874의 값을 보였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은 .165로 16.5%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은 1.781로 확인되면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위요인별로 Beta값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Beta=.209), 타인에 대한 자기효능감(Beta=.345)이 집단 효능감(훈련)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반해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Beta=-.117)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에 따라 집단 효능감(훈련)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자기효능감과 타인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훈련을 돕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해준다.

## 6. 심리적 욕구가 자기결정동기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심리적 욕구가 자기결정동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표 20>.

표 20. 심리적 욕구가 자기결정동기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 변수	$\beta$	S.E.	Beta	t	p	F-value	$R^2$ (adj $R^2$ )
자율성 동기	(상수)	1.925	.424		4.541	.000	42.762***	.240 (.234)
	자율성	.490	.060	.393	8.143***	.000		
	유능성	-.022	.047	-.021	-.456	.649		
	관계성	.209	.062	.173	3.354**	.001		
Durbin-Watson=1.083								
통제 동기	(상수)	6.710	.902		7.435	.000	6.135***	.043 (.036)
	자율성	.041	.128	.017	.319	.750		
	유능성	.027	.100	.014	.270	.787		
	관계성	-.505	.133	-.220	-3.806***	.000		
Durbin-Watson=.987								
무동기	(상수)	5.126	.881		5.819	.000	12.850***	.087 (.080)
	자율성	-.469	.125	-.198	-3.751***	.000		
	유능성	.325	.098	.169	3.313**	.001		
	관계성	-.320	.130	-.139	-2.466*	.014		
Durbin-Watson=1.589								

\*p<.05, \*\* p<.01, \*\*\*p<.001

<표 20>에 제시된 것처럼,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심리적 욕구와 자기결정동기(자율성 동기)에 대한 회귀모형은 F값이 42.762의 값을 보였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은 .240로 24.0%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은 1.083으로 확인되면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위요인별로 Beta값을 살펴보면 자율성 (Beta=.393), 관계성(Beta=.173)이 자기결정동기(자율성 동기)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반해 유능성(Beta=-.021)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심리적 욕구에 따라 자기결정동기(자율성 동기)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자율성과 관계성은 자율성 동기를 돕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해준다.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심리적 욕구와 자기결정동기(통제동기)에 대한 회귀모형은 F값이 6.135의 값을 보였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은 .043로 4.3%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은 .987로 확인되면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위요인별로 Beta값을 살펴보면 자율성 (Beta=.017), 유능성(Beta=.014)이 자기결정동기(통제동기)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반해 관계성(Beta=-.220)은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심리적 욕구에 따라 자기결정동기(통제 동기)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관계성은 통제 동기를 돕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해준다.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심리적 욕구와 자기결정동기(무동기)에 대한 회귀모형은 F값이 12.850의 값을 보였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은 .087로 8.7%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은 1.589로 확인되면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위요인별로 Beta값을 살펴보면 유능성 (Beta=.169)이 자기결정동기(무동기)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반해 자율성(Beta=-.198), 관계성(Beta=-.139)은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심리적 욕구에 따라 자기결정동기(무동기)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유능성은 통제 동기를 돕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해 주고 자율성과 관계성은 통제 동기를 돕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해준다.



## 7. 심리적 욕구가 집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심리적 욕구가 집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그림 21>.

표 21. 심리적 욕구가 집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 변수	$\beta$	S.E.	Beta	t	p	F-value	$R^2$ (adj $R^2$ )
팀 전략	(상수)	2.212	.526		4.206	.000	17.974***	.117 (.110)
	자율성	.250	.075	.174	3.345***	.001		
	유능성	.332	.059	.285	5.676***	.000		
	관계성	-.023	.077	-.017	-.301	.764		
Durbin-Watson=1.721								
지도자 신뢰	(상수)	3.326	.372		8.941	.000	25.977***	.161 (.155)
	자율성	.368	.053	.353	6.969***	.000		
	유능성	.027	.041	.032	.663	.508		
	관계성	.079	.055	.078	1.447	.149		
Durbin-Watson=.979								
의사 소통	(상수)	3.285	.376		8.748	.000	24.222***	.151 (.145)
	자율성	.312	.053	.298	5.855***	.000		
	유능성	.038	.042	.044	.902	.367		
	관계성	.136	.055	.134	2.462*	.014		
Durbin-Watson=1.763								
훈련	(상수)	3.945	.321		12.282	.000	24.887***	.155 (.149)
	자율성	.289	.046	.322	6.344***	.000		
	유능성	.025	.036	.034	.686	.493		
	관계성	.098	.047	.112	2.070*	.039		
Durbin-Watson=.979								

\*p<.05, \*\* p<.01, \*\*\*p<.001

<표 21>에 제시된 것처럼,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심리적 욕구와 집단 효능감(팀 전략)에 대한 회귀모형은 F값이 17.974의 값을 보였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은 .117로 11.7%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은 1.721로 확인되면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위요인별로 Beta값을 살펴보면 자율성(Beta=.174), 유능성(Beta=.285)이 집단 효능감(팀 전략)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반해 관계성(Beta=-.017)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심리적 욕구에 따라 집단 효능감(팀 전략)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자율성과 유능성은 팀 전략을 돕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해준다.

심리적 욕구와 집단 효능감(지도자 신뢰)에 대한 회귀모형은 F값이 25.977의 값을 보였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은 .161로 16.1%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은 .979으로 확인되면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위요인별로 Beta값을 살펴보면 자율성(Beta=.353), 유능성(Beta=.032), 관계성(Beta=.078)이 집단 효능감(지도자 신뢰)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심리적 욕구에 따라 집단 효능감(지도자 신뢰)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자율성은 지도자 신뢰를 돕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해준다.

심리적 욕구와 집단 효능감(의사소통)에 대한 회귀모형은 F값이 24.222의 값을 보였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은 .151로 15.1%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은 1.763으로 확인되면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위요인별로 Beta값을 살펴보면 자율성(Beta=.298), 유능성(Beta=.044), 관계성(Beta=.134)이 집단 효능감(의사소통)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심리적 욕구에 따라 집단 효능감(의사소통)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자율성과 관계성은 의사소통을 돕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해준다.

심리적 욕구와 집단 효능감(훈련)에 대한 회귀모형은 F값이 24.887의 값을 보였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은 .155로 15.5%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은 .979으로 확인되면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위요인별로 Beta값을 살펴보면 자율성(Beta=.322), 유능성(Beta=.034), 관계성(Beta=.112)이 집단 효능감(훈련)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심리적 욕구에 따라 집단 효능감(훈련)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자율성과 관계성은 훈련을 돕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해준다.

## 8. 자기결정동기가 집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자기결정동기가 집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표 22>.

표 22. 자기결정동기가 집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 변수	$\beta$	S.E.	Beta	t	p	F-value	$R^2$ (adj $R^2$ )
팀전략	(상수)	3.979	.387		10.284	.000	8.551***	.059 (.052)
	자율성 동기	.277	.058	.241	4.795***	.000		
	통제 동기	-.056	.031	-.093	-1.822	.069		
	무동기	.032	.032	.052	.989	.323		
Durbin-Watson=1.589								
지도자 신뢰	(상수)	4.778	.267		17.862	.000	23.121***	.146 (.139)
	자율성 동기	.278	.040	.333	6.968***	.000		
	통제 동기	-.030	.021	-.069	-1.423	.156		
	무동기	-.041	.022	-.093	-1.850	.065		
Durbin-Watson=.979								
의사 소통	(상수)	4.726	.273		17.321	.000	18.196***	.118 (.112)
	자율성 동기	.263	.041	.314	6.460***	.000		
	통제 동기	.009	.022	.021	.426	.670		
	무동기	-.036	.023	-.081	-1.575	.116		
Durbin-Watson=1.774								
훈련	(상수)	5.368	.231		23.253	.000	22.226***	.141 (.134)
	자율성 동기	.198	.034	.276	5.748***	.000		
	통제 동기	.020	.018	.052	1.071	.285		
	무동기	-.075	.019	-.197	-3.897***	.000		
Durbin-Watson=1.679								

\*p<.05, \*\* p<.01, \*\*\*p<.001

<표 22>에 제시된 것처럼,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자기결정동기와 집단 효능감(팀 전략)에 대한 회귀모형은 F값이 8.551의 값을 보였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은 .059로 5.9%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은 1.589로 확인되면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위요인별로 Beta값을 살펴보면 자율성 동기(Beta=.241), 무동기(Beta=.052)는 집단 효능감(팀 전략)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반해 통제 동기(Beta=-.093)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자기결정동기에 따라 집단 효능감(팀 전략)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자율성 동기는 팀 전략을 돕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해준다.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자기결정동기와 집단 효능감(지도자 신뢰)에 대한 회귀모형은 F값이 23.121의 값을 보였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은 .146로 14.6%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은 .979으로 확인되면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위요인별로 Beta값을 살펴보면 자율성 동기(Beta=.333)는 집단 효능감(지도자 신뢰)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반해 통제 동기(Beta=-.069), 무동기(Beta=-.093)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자기결정동기에 따라 집단 효능감(지도자 신뢰)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자율성 동기는 지도자 신뢰를 돕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해준다.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자기결정동기와 집단 효능감(의사소통)에 대한 회귀모형은 F값이 18.196의 값을 보였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은 .118로

11.8%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은 1.774로 확인되면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위요인별로 Beta값을 살펴보면 자율성 동기(Beta=.314), 통제 동기(Beta=.021)는 집단 효능감(의사소통)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반해 무동기(Beta=-.081)는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자기결정동기에 따라 집단 효능감(의사소통)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자율성 동기는 의사소통을 돕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해준다.

자기결정동기와 집단 효능감(훈련)에 대한 회귀모형은 F값이 22.226의 값을 보였으며, 회귀식에 대한  $R^2$ 은 .141로 14.1%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은 1.679로 확인되면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위요인별로 Beta값을 살펴보면 자율성 동기(Beta=.276), 통제 동기(Beta=.052)는 집단 효능감(훈련)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반해 무동기(Beta=-.197)는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자기결정동기에 따라 집단 효능감(훈련)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자율성 동기는 훈련을 돕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해 주고 무동기는 훈련을 돕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해준다.

## V. 논의

본 연구는 고교야구 선수들이 인식하는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욕구, 자기결정동기와 집단효능감과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욕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리적 욕구는 자기결정동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결정동기는 집단 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욕구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이 개인적인 특성과 환경적인 특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고 발달하지만,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자기효능감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해왔다. 개인과 환경 특성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자기효능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최근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이 개념화되었다(Bourne et al., 2015; Lent & Lopez, 2002; Jackson et al., 2012, 2013, 2014).

자기효능감이 주요타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지도자와 선수, 교사와 학생 그리고 동료들 간의 협력, 격려와 지지가 중요한 스포츠 상황에서 삼분법적 자기효능감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실제로 큰 의미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야구선수가 인식하는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그 결과, 삼분법적 내 자기효능감은 자율성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은 유능성과 관계성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타인에 의한 자기효능감은 자율성과 유능성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유능성에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에 심리적 욕구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 유형의 자기효능감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은 각각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기효능감은 자율성 욕구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 참여를 중시하는 자율성에 중요한 효능감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은 유능성 욕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개인이 지닌 기술과 능력을 잘 발휘하고 싶은 욕구에 있어서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Lent와 Lopez(2002)는 학생들이 체육 교사로부터 신뢰, 포용과 믿음을 보여줄 때, 학생들의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제시했다. 또한, 천승현과 송용관(2017)의 연구에서도 관계 추론 자기효능감은 유능성과 높은 상관을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타인에 의한 효능감은 관계성 욕구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인간은 누구와 다른 사람과 가깝다고 느끼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타인에 의한 효능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타인 효능감은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요타자의 행동(예, 능력, 피드백, 관심과 지원)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Lent & Lopez, 2002; Jackson et al., 2012, 2013, 2014). 체육 수업 상황에서 Jackson 등(2013, 2014)의 연구에서도 교사에 대한 믿음은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야구선수들은 지도자의 관심과 지원에 따라서 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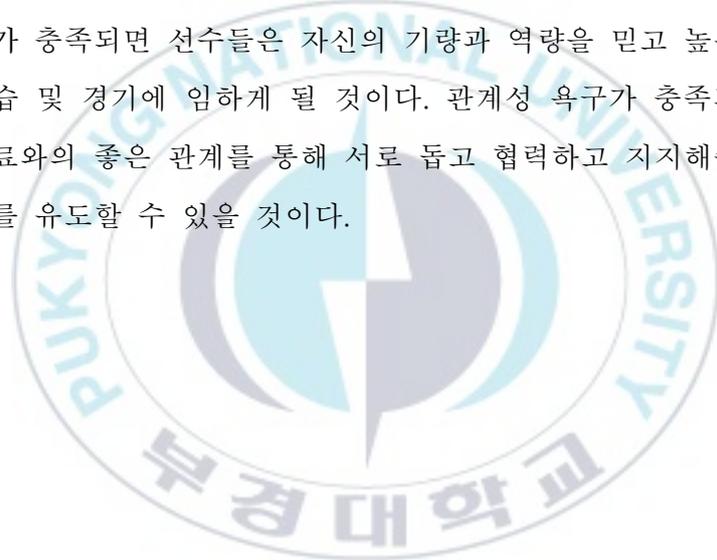
## 2. 심리적 욕구가 자기결정동기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욕구 만족은 긍정적인 정서와 심리적 안녕을 경험하게 한다 (Reis, Sheldon, Gabel, Roscoe, & Ryan, 2000; Ryan & Deci, 2001). 이러한 심리적 욕구는 인간의 내면화로 대변되는 내적 동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심리적 욕구는 사회적 환경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자기결정 이론에서 심리적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 요인은 주요타자에 의해서 조성되는 자율성지지, 유능성지지, 관계성지지이다(Ryan & Deci, 2016).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환경 요인으로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을 선행변인으로 심리적 욕구와 자기결정동기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자기효능감 이론과 자기결정 이론은 인간의 내적 동기를 이해하는 인지평가이론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동기 유형을 자율성 동기, 통제 동기와 무동기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동기의 유형을 확인하는 것은 동기 상태에 따라서 자율성 수준이 다르고, 이러한 자율성 수준에 따라 인간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Gottfried, 1985; Grolnick & Ryan, 1987; Ryan & Connell, 1989; vallerand et al., 1992). 연구결과, 심리적 욕구에서 자율성과 관계성은 자율성 동기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관계성은 통제 동기에 부적 영향을 미쳤고, 무동기에서는 자율성과 관계성이 부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자율성, 유능성과 관계성 욕구 만족은 학습, 성장과 발달을 위한 동기의 근원이 된다. 심리적 욕구 만족을 통해 행동이 자율적인 경우는 내적 동기화가 이루어진 상태로 볼 수 있다.

자율성은 참여 의사, 가치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개인의 선택과 의사결정을 중시한다. 따라서 특정 목표를 수립하고 과제를 선택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지닌 자기효능감은 선택과 결정 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유능성은 특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자신의 수행 수준을 넘어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자신감을 대변한다(Ryan & Powelson, 1991). 또한, 관계성은 개인의 자기조절 체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Hill, 2007). 따라서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받은 심리적 욕구는 야구선수들의 동기유형에 영향을 미쳐 선수들의 동기에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면, 야구선수들은 자율적 동기로 인해 더욱 적극적인 훈련 태도를 보일 것이다. 유능성 욕구가 충족되면 선수들은 자신의 기량과 역량을 믿고 높은 자신감을 느끼고 연습 및 경기에 임하게 될 것이다. 관계성 욕구가 충족되더라도 선수들은 동료와의 좋은 관계를 통해 서로 돕고 협력하고 지지해주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3. 자기결정동기가 집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집단 효능감은 팀 결속과 응집력과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된다. 특히, 스포츠 상황에서 집단 효능감은 자기효능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하다(송용관, 2015; Feltz et al., 2008). 대부분의 연구는 개인적 특성의 자기효능감과 집단의 특성인 집단 효능감의 관계를 규명해왔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의 결합된 삼분법적 자기효능감과 집단 효능감의 관계에서 심리적 욕구와 자기결정동기의 영향력을 확인했다. 자기결정동기는 특정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적 요인으로 유발된다(Reeve, 2017). 그리고 이러한 자기결정동기는 선수들의 수행과 성취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도 자기결정동기는 집단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율성 동기는 집단 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 동기와 무동기는 집단 효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야구선수들의 집단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자율적 동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고교 야구선수들이 자신이 왜 운동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을 때 집단 효능감 중 훈련에 대한 확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선수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지닐 때 개인과 팀을 위한 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회적 환경과 내적 동기가 집단 효능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시한 선행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임영택, 육동원, 박윤식, 신정택, 2006; 최영준, 2020).

집단 효능감은 자아효능감(Magyar et al. 2004)과 집단 응집력(Kozub & McDonnell, 2000)을 포함하는 개인 수준과 집단수준에서의 수행에 있어서 (Bruton et al., 2014) 다른 심리적 구조와도 관련성이 크다(송용관, 2015에

서 재인용). 따라서 개인 수준과 집단수준의 특성을 모두 고려해서 접근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자기결정동기 유형은 집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는 집단 효능감은 지도자에 의해서 조성되는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만큼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즉, 선수가 지도자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높을 때 개인의 자아효능감이 높아지며, 이는 다양한 심리적 변인과 함께 집단 효능감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집단 효능감은 선수 자신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지도자에 대한 믿음, 그리고 지도자가 선수에 대한 믿음이 모두 충족됐을 때 그 수준이 결정된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된 최종적인 결론을 요약하여 제시하였으며, 향후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 1. 결론

본 연구는 고교야구 선수들의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욕구, 자기결정동기와 집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후속연구 시 고려해야 할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고교야구 선수들의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욕구에 심리적 욕구가 자기결정동기 그리고 자기결정동기가 집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연구목적을 규명하기 위하여 부산 및 경남, 경북에 있는 고등학교 야구부를 중심으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41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문항, 삼분법적 자기효능감 27문항, 심리적 욕구 만족 14문항, 자기결정동기 20문항, 집단 효능감 16문항으로 총 8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설검정을 위해 각 변인에 대한 관계를 회귀분석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으며, AMO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을 진행하여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야구 선수들의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욕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선행변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교야구 선수들의 심리적 욕구는 자기결정동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교야구 선수들의 자기결정동기는 집단 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제언

본 연구는 고교야구 선수들의 삼분법적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욕구, 자기결정동기와 집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후속연구 시 고려해야 할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통한 양적 연구방법을 통해 진행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인터뷰, 주관적 인식유형, 문화기술법, 참여관찰 등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야구 종목에 참여하고 있는 고교선수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목에 관한 연구의 확장을 통해 연구 변인에 대한 다각적인 결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김병준, 오수학(2011). **체육학 연구법 제3판**. 서울: 무지개사.
- 김아영, 오순애(2001). 자기결정성 정도에 따른 동기유형의 분류. **한국교육심리학회지**, 15(4), 97-119.
- 김인수(2014). 초등예비교사의 체육에 대한 능력 믿음, 관계-추론 효능감과 자기효능감, 노력 및 운동수행과의 구조적 관계.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0(1), 61-72.
- 김재화, 이현수(2018). 통합모델을 적용한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의도의 이해: 계획행동이론과 자기결정이론.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6(4), 127-141.
- 김혜정, 한송이(2010). 교수-학생의 상호작용이 신체적 자기효능감 및 무용능력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지**, 21, 1-18.
- 박영민(2010). **자기결정성 학습동기가 자기주도적 학습과 학업 꾸물거림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용관(2015). 팀 스포츠에서 코치와 동료의 동기부여방식이 심리적 욕구만족과 집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체육과학연구**, 26(4), 761-779.
- 송용관, 김승재, 천승현(2017). 체육수업에서 심리적 욕구좌절 척도의 타당화 검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1(4), 149-163.
- 송용관, 천승현, 김승재(2018). 지도자의 상호소통방식이 선수들의 심리적 욕구, 정신력, 집단효능감과 도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7(2), 407-424.
- 송용관, 천승현, 황승현(2017). 스포츠 상황에서의 코칭방식이 선수들의 심리적 욕구만족, 정신력, 그리고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6(1), 247-261.
- 양명환, 김덕진, 김정수(2008). 대학생의 스포츠 동아리와 교양체육활동이 심리적 욕구 만족, 동기 및 심리적 웰빙 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9(4), 87-104.
- 양재영, 김재화(2016). 대학교양체육수업에서 지각된 교수행동이 학생들의 심리적

- 욕구와 내적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6, 343-351.
- 유지원(2011). **학습자의 몰입에 영향을 주는 동기요인, 심리적 중재 요인, 사회적 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 규명**.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유진, 임수원(2009). 축구 집단효능감 검사지 개발과 타당화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0(3), 17-31.
- 윤석균(2015). **단체종목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집단효능감과 성취목표성향이 팀 귀인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임명재, 신종순(2011). 선수의 자기 효능감 수준이 내적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6(3), 123-131.
- 임영택, 육동원, 박윤식, 신정택(2006). 스포츠교육 모형의 적용이 중학생의 내적동기, 자기효능감, 집단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5(6), 301-316.
- 장성덕(2008). **운동 지속실천자의 운동행동 변화단계 체험**.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미진(2018). **무용진공자의 삼분법적 효능감이 노력, 기대수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주현정(2016). **양궁 단체전 팀의 응집력이 집단 효능감과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 지준희(2012). **야구선수들의 자기관리가 집단효능감 및 집단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천경민(2009). 청소년의 스포츠목표성향이 운동행동규제에 미치는 영향. **교과교육학연구**, 13(3), 553-567.
- 천승현(2012). 자기결정이론에 근거한 체육교사의 동기부여방식과 심리적 욕구 및 정서참여 간의 관계 검증.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14(2), 35-49.
- 천승현, 김보람, 송용관(2018). 체육교사의 관계성지지 교수행동 척도의 타당성 검증.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20(3), 77-93.
- 천승현, 문익수(2010). 피트니스 프로그램 내 참여자들의 동기부여 촉진전략: 자율

- 성지지와 그 효과.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1(1), 175-195.
- 천승현, 송용관(2014). 소프트볼 수업 내 AGE 프로그램이 심리적 욕구만족과 내적 동기에 미치는 효과.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5(2), 53-72.
- 천승현, 송용관(2017). 체육수업에서 삼분법적 자기효능감 척도 타당화. **한국체육학회지**, 56(6), 175-190.
- 천승현, 송용관(2017), 체육수업에서의 학생들의 학습동기가 교사의 교수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145 - 160
- 천승현, 송용관. 존마샬리브, 김보람(2019). 체육교사의관계성 지지가 학습자의 심리적 욕구 및 여가시간 신체활동 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8(10), 97-113.
- 최병연(2002).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이론의 교육적 적용. **교육문제연구**, 16, 165-184.
- 최영준(2020). 태권도 선수의 또래집단 동기분위기와 집단효능감 및 운동수행능력의 관계. **스포츠사이언스**, 37(2), 313-322.
- 최창호(2000). 집단효능감 지각의 영향요인과 결과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하정완(2016). 성인 태권도 수련생의 자기결정성과 행동규제 및 운동태도와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대학원.
- 홍현경, 정용용(2012). 자기효능감이 조직구성원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지역 특급호텔 종사자를 중심으로. **호텔리조트연구**, 11(1), 199-221.
- Abramson, L. Y., Seligman, M. E., & Teasdale, J. D. (1978).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Critique and refor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1), 49.
- Appleton, P. R., Ntoumanis, N., Quested, E., Viladrich, C., & Duda, J. L.(2016). Initial validation of the coach-created Empowering and Disempowering Motivational Climate Questionnaire (EDMCQ-C).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22, 53-65.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O'Connell, P., Pepler, D., and Craig, W. (1999). Peer involvement in bullying: insight and challenges for intervention. *Journal of Adolescence*, 22, 0238.
- Bandura, A. (1986). The explanatory and predictive scope of self-efficacy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3), 359-373.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
- Bartholomew, K. J., Ntoumanis, N., Ryan, R. M., & Thøgersen-Ntoumani, C. (2011). Psychological need thwarting in the sport context: Assessing the darker side of athletic experience.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3(1), 75-102.
- Bourne, A., Reid, D., Hickson, F., TorresRueda, S., & Weatherburn, P. (2014). The Chemsex study: drug use in sexual settings among gay and bisexual men in Lambeth, Southwark and Lewisham. London: Sigma Research, 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 Carroll, J. B. (1963). A Model of school Learning. *Teachers College Record* Volume 64(8), p. 723-723.
- Chen, B., Vansteenkiste, M., Beyers, W., Boone, L., Deci, E. L., Van der Kaap-Deeder, J., & Ryan, R. M. (2015).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need frustration, and need strength across four cultures. *Motivation and Emotion*, 39(2), 216-236.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Y: *Plenum Press*.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Deci, E. L. (1971). Effects of externally mediated rewards on intrins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8, 105-115.
- Deci, E. L., & Ryan, R. M. (2002).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 dialectical perspective.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3-33.
- Deci, E. L., & Ryan, R. M.(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 Duda, J. L.(2013). The conceptual and empirical foundations of Empowering Coaching™: Setting the stage for the PAPA project.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1(4), 311-318.
- Dunlop, W. L., Beatty, D. J., & Beauchamp, M. R. (2011). Examining the effect of other-efficacy and self-efficacy on personal performance.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33, 586-593.
- Fenton, S. A., Duda, J. L., Quested, E., & Barrett, T.(2014). Coach autonomy support predicts autonomous motivation and daily moderate-to-vigorous physical activity and sedentary time in youth sport participant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15(5), 453-463.
- Gagne, M., Ryan, R. M., & Bargmann, K. (2003). Autonomy support and need satisfaction the motivation and well-being of gymnasts.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5, 372-390.
- Gibbons, S. L. (2014). Relatedness-supportive learning environment for girls in physical education. *Inclusive Education: Socially Just Perspectives and Practices*, 7(2), 139-150.
- Gibson, C. B. (1995).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group efficacy beliefs

- in work organizations in the United States, Hong Kong, and Indonesia.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A: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56.
- Gist, M. E., & Mitchell, T. R. (1992). Self-efficacy : A theoretical analysis of its determinants and malleabil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7, 183-211.
- Gist, M. E. (1987). Self-efficacy: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2, 477-485.
- Gottfried, A. E. (1985). Academic intrinsic motivation in you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523-538
- Grolnick, W. S., & Ryan, R. M. (1987). Autonomy in children's learning: An experimental and individual difference investig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890-898.
- Goudas, M, Biddle, D, & Fox, K.(1994).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goal orientation and perceived competence in school physical education classe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4, 453-463.
- Hills, L. (2007). Friendship, physicality, and physical education:an exploration of the social and embodied dynamics of girls'physical education experiences. *Sport, Education and Society*, 12(3), 317-336.
- Hofer, J., & Busch, H. (2011). Satisfying one's needs for competence and relatedness consequent domain-specific well-being depends on strength of implicit moti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7(9), 1147-1158.
- Jackson, B., Whipp, P. R., Chua, K. L. P., Pegelley, R., & Beauchamp, M. R.(2012). Assessment of tripartite efficacy beliefs within school-based physical education: Instrument development and reliability and validity

- evidence.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13, 108-117.
- Kenny, D. A., & Acitelli, L. K., (2001). Accuracy and bias in the perceptions of the partner in a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439-448.
- Klimoski, R., & Mohammed, S. (1994). Team mental model: Construct or metaphor. *Journal of Management*, 20, 403-437.
- Lent, R. W., & Lopez, F. G. (2002). Cognitive ties that bind: A tripartite view of efficacy beliefs in growth-promo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 Clinical Psychology*, 21, 256-286.
- Lepper, M. R., & Green, D., (1975). Turning play into work: Effects of adult surveillance and extrinsic rewards on children's intrins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479-486.
- Lepper, M. R., Green, D., & Nisvett, R. E. (1973). Undermining children's intrinsic interest with extrinsic rewards: A test of the over justification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8(1), 129-137.
- Little, B. L., & Madigan, R. M. (1994). Motivation in work teams: A test of the construct of collective efficacy. *In annual meeting of the Academy of Management, Houston, TX* (Vol. 70).
- Lopez, F. G., Lent, R. W., Brown, S. D., & Gore, P. A. Jr(19997). Role of social-cognitive expectations in high school students' mathematics-related interests and performa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 44-52
- Mason, M. M. (2012). Motivation, satisfaction, and innate psychological needs. *International Journal of Doctoral Studies*, 7, 259-277.
- Ntoumanis, N.(2012).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motivation in sport and physical education: Current trends and possible future research directions. *Motivation in Sport and Exercise*, 3(1), 91-128.
- Quested, E., & Duda, J. L. (2010). Exploring the social-environmental

- determinants of well-and ill-being in dancers: A test of basic needs theory.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2(1), 39-60.
- Reinboth, M., Duda, J. L., & Ntoumanis, N.(2004). Dimensions of coaching behavior, need satisfaction, and the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fare of young athletes. *Motivation and Emotion*, 28(3), 297-313.
- Reis, H. T., Sheldon, K. M., Gable, S. L., Roscoe, R., & Ryan, R. (2000). Dailywell-being: The role of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 419 - 435.
- Ryan, R. M., & Deci, E. L. (2016).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1), 54-67.
- Ryan, R. M., & Powelson, C. I. (1991). Autonomy and relatedness as fundamental to motivation and educ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60, 49-66.
- Ryan, R. M., & Deci, E. L. (2000).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1), 54-67.
- Ryan, R. M., & Powelson, C. L. (1991). Autonomy and related-ness as fundamental to motivation and education. *Th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60(1), 49-66.
- Ryan, R. M., Frederick, C. M., Lepas, D., Rubio, N., & Sheldon, K. M. (1997). Intrinsic motivation and exercise adher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8, 335-354.
- Ryan, R. M., Frederick, C. M., Lepas, D., Rubio, N., & Sheldon, K. M. (1997). Intrinsic motivation and exercise adher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8, 335-354.
- Ryan, S. (1995). Ethnic conflic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Dartmouth Pub Co.
- Seijts, G. H., Latham, G. P., & Whyte, G. (2000). Effect of self-and group

- efficacy on group performance in a mixed-motive situation. *Human Performance*, 13(3), 279-298.
- Shen, B., McCaughtry, N., Martin, J. J., Fahlman, M., & Garn, A.C. (2012). Urban high-school girls' sense of relatedness and their engagement in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31(3), 231-245.
- Short, S. E., Sullivan, P., & Feltz, D. L. (2005).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the collective efficacy questionnaire for sports. *Measurement in Physical Education and Exercise Science*, 9, 181-202.
- Spink, K. S. (1990). Group cohesion and collective efficacy of volleyball teams.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2, 301-311.
- Sun, H., & Chen, A., (2010). A pedagogical understanding of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in physical education. *Quest*, 62, 364-384.
- Vansteenkiste, M., & Ryan, R. M. (2013). On psychological growth and vulnerability: Basic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and need frustration as a unifying principle. *Journal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23(3), 263-280.
- Wilson, P. M., Rogers, W. T., Rodgers, W. M., & Wild, T. C. (2006). The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in Exercise Scale.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28, 231-251.
- Zaccaro, S. J., Blair, V., Peterson, C., & Zazanis, M. (1995). Collective efficacy. In *Self-efficacy, adaptation, and adjustment* (pp. 305-328). Springer, Boston, MA.

**Relations between Collective Efficacy, Self-Determined Motivation,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Tripartite Efficacy on Baseball Player in High School**

Sung-Chul Bae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Supervisor Yong-Gwan Song

Abstract

Grounded in tripartite efficacy theory (TE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lations between collective efficacy, self-determined motivation,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tripartite efficacy on baseball athlete students' in high school. For this way, four-hundred eleven athlet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competed the pack of questionnaire tapping the targeted variables. To test the research hypotheses was used SPSS and AMOS statistical programs. Results showed that first, self-efficacy (i.e., confidence in their own capabilities) within tripartite efficacy was positively associated for baseball player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autonomic motivation and collective efficacy. Second, the relation-inferred self-efficacy (i.e., their coach's confidence in their ability as a athlete) was positively associated for competence and relatedness within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autonomic and controlling motivation, whereas it was negatively associated autonomy and amotivation. It also was negatively associated collective efficacy. Finally, other-efficacy (i.e., their confidence in their coach's ability) was positively associated for autonomy,

relatedness and collective efficacy, whereas it was negatively associated competence, controlling motivation and amotivation. More details and future direc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tripartite efficacy, self-efficacy, relation-inferred self-efficacy, other-efficacy, basic psychological needs, self-determined motivation, collective efficacy



설문번호 (기입하지 마세요)			
--------------------	--	--	--

## 삼분법적 효능감이 야구선수의 심리적 욕구, 자기결정동기, 집단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십니까?  
설문에 응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삼분법적 효능감이 심리적 욕구, 자기결정동기, 집단 효능감에 관한 연구”를 위한 설문입니다.

본 조사는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누가 어떤 내용의 응답을 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분석결과도 통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보호될 뿐만 아니라 학문적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은 수집하지 않는 것과 함께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설문지에 대한 응답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니 솔직하게 답변에 응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어진 응답 요령을 주의 깊게 잘 읽으신 후 빠짐없이 답변에 응해주시면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기재 방법은 자신의 경우에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항목 번호에 √ 표시하시면 됩니다.

본 설문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배 성 철(010 6808 4235)  
지도교수 : 송 용 관 교수  
e-mail : 520-4235@hanmail.net

I. 인구사회통계학 특성에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학년은?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2. 귀하의 야구 경력은?

-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 - 7년 미만                    ③ 7년 이상 - 9년 미만

3. 귀하의 포지션은?

- ① 투수    ② 포수    ③ 내야수    ④ 외야수

4. 우리 팀의 입상 성적은?

- ① 우승    ② 준우승    ③ 4강    ④ 8강    ⑤ 16강



II. 다음은 귀하의 삼분법적 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질문 항목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훈련에서 나는 매번 최선을 다한다.	1	2	3	4	5	6	7
2	훈련에서 나는 운동(과제)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	1	2	3	4	5	6	7
3	훈련에서 나는 익숙하지 않거나 어려운 활동이 주어질 때도 열정적으로 참여한다.	1	2	3	4	5	6	7
4	훈련에서 나는 가장 어려운 활동일지라도 내가 배우는 모든 활동과 기술들을 학습한다.	1	2	3	4	5	6	7
5	훈련에서 나는 매번 감독(코치)님이 제시한 훈련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다.	1	2	3	4	5	6	7
6	훈련에서 나는 내가 배운 기술들을 모두 잘 수행한다.	1	2	3	4	5	6	7
7	훈련에서 나는 어렵거나 익숙하지 않은 활동이라도 훈련시간에 다른 활동들을 모두 시도한다.	1	2	3	4	5	6	7
8	훈련에서 나는 나의 기술들을 연습하고 향상한다.	1	2	3	4	5	6	7
9	훈련에서 나는 대항전(경기나 게임)을 할 때마다 내가 지닌 기술들을 잘 수행한다.	1	2	3	4	5	6	7
10	감독(코치)님은 “내가 매번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11	감독(코치)님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12	감독(코치)님은 내가 “익숙하지 않거나 어려운 활동이 주어질 때도 열정적으로 참여한다”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13	감독(코치)님은 내가 “가장 어려운 활동일지라도	1	2	3	4	5	6	7

	내가 배우는 모든 활동과 기술들을 잘 학습한다"라고 생각한다.							
14	감독(코치)님은 내가 "매번 감독(코치)님이 제시한 훈련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다"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15	감독(코치)님은 내가 "배운 기술들을 모두 잘 수행한다"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16	감독(코치)님은 내가 "어렵거나 익숙하지 않은 활동이라도 훈련시간에 다른 활동들을 모두 시도한다"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17	감독(코치)님은 내가 "나의 기술들을 연습하고 향상한다"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18	감독(코치)님은 내가 "대항전(경기나 게임)을 할 때마다 내가 지닌 운동기술을 잘 발휘하고 좋은 수행을 보인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19	감독(코치)님은 나를 위해 훈련이 항상 충분히 활동적이며 에너지 넘치도록 한다.	1	2	3	4	5	6	7
20	감독(코치)님은 힘들거나 익숙하지 않은 활동을 할 때도 나에게 동기부여를 한다.	1	2	3	4	5	6	7
21	감독(코치)님은 내가 학습해야 하는 모든 활동이나 스포츠에서 전문가이다.	1	2	3	4	5	6	7
22	감독(코치)님은 익숙하지 않거나 어려운 활동을 할 때도 훈련이 항상 즐거울 수 있도록 한다.	1	2	3	4	5	6	7
23	감독(코치)님은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실수를 할 때도 체육수업이 항상 나를 격려 응원한다.	1	2	3	4	5	6	7
24	감독(코치)님은 내가 잘하도록(향상되도록) 충분한 주의와 피드백(정보)을 제공한다.	1	2	3	4	5	6	7
25	감독(코치)님은 훈련이 흥미롭도록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1	2	3	4	5	6	7
26	감독(코치)님은 항상 모든 선수를 공평하게 대한다.	1	2	3	4	5	6	7
27	감독(코치)님은 나를 위해 훈련이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도록 한다.	1	2	3	4	5	6	7

Ⅲ. 다음은 귀하의 심리적 욕구 만족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질문 항목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연습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다.	1	2	3	4	5	6	7
2	내가 하고 싶은 운동기술 및 활동과 관련하여 나의 의견이나 의사를 밝힐 수 있다.	1	2	3	4	5	6	7
3	내가 좋아하고 원하기 때문에 이 활동에 참여한다.	1	2	3	4	5	6	7
4	나는 연습 활동을 함에 있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낀다.	1	2	3	4	5	6	7
5	내가 선호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선택과 기회가 많다.	1	2	3	4	5	6	7
6	나는 야구를 상당히 잘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7	나는 내 실력에 대해 만족감을 느낀다(만족한다).	1	2	3	4	5	6	7
8	야구훈련, 경기한 후 내 능력이 꽤 괜찮다고 생각을 많이 한다.	1	2	3	4	5	6	7
9	나의 운동능력 및 실력은 꽤 좋은 편이다.	1	2	3	4	5	6	7
10	나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고 느낀다.	1	2	3	4	5	6	7
11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낀다.	1	2	3	4	5	6	7
12	나는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6	7
13	나는 인격체로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1	2	3	4	5	6	7
14	나는 편안함을 느낀다.	1	2	3	4	5	6	7

IV. 다음은 귀하의 자기결정동기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질문 항목 (내가 야구훈련에 참여하는 이유는 ____ 참가한다)	전혀 아니 다.	대 체 로 아 니 다.	약 간 아 니 다.	보 통 이 다.	약 간 그 렇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훈련이 재미있으므로	1	2	3	4	5	6	7
2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즐거우므로	1	2	3	4	5	6	7
3	훈련이 나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1	2	3	4	5	6	7
4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즐거우므로	1	2	3	4	5	6	7
5	나는 운동기술을 배우길 원하기 때문에	1	2	3	4	5	6	7
6	훈련을 잘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1	2	3	4	5	6	7
7	야구를 잘하고 싶으므로	1	2	3	4	5	6	7
8	내 삶의 다른 부분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배울 수 있으므로	1	2	3	4	5	6	7
9	감독(코치)님이 나를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하길 원하기 때문에	1	2	3	4	5	6	7
10	훈련을 참여하지 않으면, 스스로에(나 자신에) 대해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훈련에 참여한다.	1	2	3	4	5	6	7
11	다른 선수들이 내가 야구를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하길 원하기 때문에	1	2	3	4	5	6	7
12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그것으로 인해 성가신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1	2	3	4	5	6	7
13	내가 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	2	3	4	5	6	7
14	나는 훈련에 참여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1	2	3	4	5	6	7
15	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면 감독(코치)님이 야단치기 때문에	1	2	3	4	5	6	7
16	해야만 하는 규칙·규정이기 때문에	1	2	3	4	5	6	7
17	나는 왜 훈련에 참여하는지 모르겠다.	1	2	3	4	5	6	7
18	나는 왜 우리가 훈련에 참여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1	2	3	4	5	6	7
19	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시간이 아깝다고 느낀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	1	2	3	4	5	6	7
20	나는 훈련을 벗어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훈련에 참여한다.	1	2	3	4	5	6	7

V. 다음은 귀하의 집단 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체크 (✓)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질문 항목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팀은 강팀을 상대로 많이 이겼다.	1	2	3	4	5	6	7
2	우리 팀은 세트플레이를 잘한다.	1	2	3	4	5	6	7
3	우리 팀은 선수층이 두껍다.	1	2	3	4	5	6	7
4	우리 팀은 선수들은 상대 팀 선수보다 커 보인다.	1	2	3	4	5	6	7
5	우리 팀은 감독님의 전술이 좋다.	1	2	3	4	5	6	7
6	우리 팀은 실력 있는 감독(코치)님한테 배운다.	1	2	3	4	5	6	7
7	우리 팀은 코치진을 믿는다.	1	2	3	4	5	6	7
8	우리 팀은 코치진과 선수 간에 신뢰가 깊다.	1	2	3	4	5	6	7
9	우리 팀은 선수 서로 간에 믿는다.	1	2	3	4	5	6	7
10	우리 팀은 시합 중에 대화를 많이 한다.	1	2	3	4	5	6	7
11	우리 팀은 서로 간에 호흡이 잘 맞는다.	1	2	3	4	5	6	7
12	우리 팀은 서로 팀 동료를 위쪽으로 한다.	1	2	3	4	5	6	7
13	우리 팀은 선수 간의 갈등을 해소한다.	1	2	3	4	5	6	7
14	우리 팀은 경기를 위한 많은 훈련을 해왔다.	1	2	3	4	5	6	7
15	우리 팀은 훈련을 열심히 해왔다.	1	2	3	4	5	6	7
16	우리 팀은 상대 팀을 미리 분석해 두었다.	1	2	3	4	5	6	7